



# 목차



## 2017 도서관 프로그램

### 이천시립도서관 ... 04

독서토론 리더과정 | 도서관 주간행사 | 독서의 달 행사 | 길 위의 인문학 | 20주년 기념 도서관 한마당 | 시민문화교실 | 야간프로그램 | 독서감상문 우수작 시상 |

### 청미도서관 ... 07

방학프로그램 · 독서교실 | 북스타트 · 책놀이 | 청미문화교실 | 도서관주간 행사 | 독서의 달 행사 |

### 어린이도서관 ... 11

방학프로그램 · 독서교실 | Little Bookworms | 책날개 교실 | 북스타트 · 책놀이 | 도서관주간 행사 | 독서의 달 행사 |

### 효양도서관 ... 13

독서교실 | 개관 3주년 기념행사 | 도서관주간 행사 | 독서문화교실 | 주말프로그램 | 독서의 달 행사 |

## '책읽는 이천' 5행시 우수작 ... 16

## 독서감상문 우수작

### 초등부

- | 박인엘 | 대 상 / 노근리, 그 해 여름 ... 21
- | 권보민 | 금 상 / 희망을 주는 암탐지견 뽀뽀 ... 27
- | 박성연 | 은 상 / 장발장 ... 31
- | 류수현 | 동 상 / 머리가 좋아지는 만화1 ... 35
- | 최서란 | 장려상 / 나 하나쯤 뭐 어때? ... 39
- | 정유림 | 장려상 / 으랏차차 뽕보클럽 ... 43

### 중등부

- | 이상윤 | 대 상 / 맨홀 ... 48
- | 이가영 | 금 상 / 가자에 띄운 편지 ... 52
- | 박지은 | 은 상 / 철수는 철수다 ... 57
- | 김동준 | 동 상 / 키싱 마이 라이프 ... 61
- | 이에진 | 장려상 / 열일곱, 최소한의 자존심 ... 65
- | 지아현 | 장려상 / 천국의 책방2 ... 69





- 고등부** | 김서정 | 대 상 / 풀꽃도 꽃이다 ... 74  
 | 김나림 | 금 상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81  
 | 김학수 | 은 상 / 에밀 ... 84  
 | 이유리 | 동 상 / 이방인 ... 91  
 | 선예진 | 장려상 / 나는 중국이 매일 낯설다 ... 96  
 | 조은서 | 장려상 / 왜 학교는 질문을 가르치지 않는가 ... 100

- 일반부** | 우성웅 | 대 상 /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 ... 106  
 | 조양수 | 금 상 / 최고의 공부 ... 114  
 | 최옥경 | 은 상 / 오베라는 남자 ... 118  
 | 김창덕 | 동 상 / 옥상에서 10분만 ... 123  
 | 이상은 | 장려상 / 여혐민국 ... 127  
 | 진보라 | 장려상 / 기억 전달자 ... 132  
 | 김덕순 | 장려상 / 조정래의 시선(視線) ... 137

- 군인부** | 이수진 | 대상 / 시네필 다이어리(cinema+philosophy) ... 142

**이천시 도서관 안내... 147**

- 공공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 이천시립도서관



## 독서토론 리더과정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독서토론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독서토론 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 20주년 기념 도서관 한마당

시립도서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이천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운영하였다. 다양한 공연프로그램과 더불어 공공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이 함께 모여 준비한 20여가지의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다독자 시상



독서 골든벨



사이언스 매직공연



전시·체험 부스

## 독서의 달 행사

독서의 달 9월을 맞이하여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독서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목걸이 대출증지갑 만들기



## 길 위의 인문학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 협회 주관, 인천시립도서관 시행으로 인천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길 위의 인문학-함께쓰기”를 운영하였다.



나를 찾는 글쓰기 산책



내 마음을 치료하는 글쓰기 산책



서평으로 시작하는 글쓰기 산책

## 도서관주간 행사

제53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다독다독,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샌드아트공연, 원화전시, 보드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상상력 팡팡 보드게임



오감만족 샌드아트





# 이천시립도서관



## 시민문화교실

도서관을 시민의 지적활동, 문화활동,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며 올해는 한국사논술지도사 양성과정, 책놀이 지도사과정, 코바를 기초반을 운영 하였다.



책놀이지도사과정



한국사논술지도사 양성과정

## 야간프로그램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도서관의 복합 문화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있다. 2017년 새롭게 시작한 이천시 독서 마라톤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독서 습관 형성 및 글쓰기 능력 배양을 위한 글쓰기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글쓰기를 부탁해



독서토론허강

## 독서감상문 우수작 시상

제1회 이천시 독서마라톤을 통해 공모를 신청한 독서감상문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 청미도서관

## 방학프로그램·독서교실

방학기간동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겨울/여름방학 기간에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음악나들이 (여름)



이ना사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여름)



이야기활동 체험 (여름)



창의놀이 수학 (여름)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겨울)



전래동화 책놀이 (겨울)



# 청미도서관

## 청미문화교실

도서관을 시민의 지적활동, 문화활동,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청미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야기활동전문가 과정



한국어자격능력시험 과정

## 북스타트·책놀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에게 그림책을 선물하고, 책놀이 활동을 통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독서문화운동입니다.



영유아 책놀이

## 도서관주간 행사

제53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다독다독,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였다.



우드버닝독서대 만들기



## 독서의 달 행사

독서의 달 9월을 맞이하여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샌드아트 공연



샌드아트 공연



원화전시회



채인선 작가초청 강연회



## 어린이도서관

### 방학프로그램·독서교실

방학기간동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겨울/여름방학 기간에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화요리 (여름)



독서교실1



독서교실2



과학교실 (겨울)



리본공예 (겨울)



상상요리 (겨울)



영어스토리텔링 (겨울)



### Little Bookworms

이천영어마을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영어독서활동으로 아이들이 영어독서를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북스타트·책놀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에게 그림책을 선물하고, 책놀이 활동을 통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독서문화운동입니다.



### 책날개 교실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글쓰기 논술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학기 중에 운영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자라는 책날개 교실



반납다 사회야



신나는 지리역사여행

## 어린이도서관

### 도서관주간 행사

제53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다독다독,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꽃피자 만들기



인형극 '양치기 소년 시로'

### 독서의 달 행사

독서의 달 9월을 맞이하여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공기청정 행잉볼 만들기



미니온 매직버블쇼

# 효양도서관

## 독서교실

방학기간동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겨울·여름방학 기간에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고력 튼튼 초등 인문학 (여름)



사고력 튼튼 초등 인문학 (여름)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즐거운 책읽기 (겨울)



이야기 풀단지 선생님의 사계절 이야기 (겨울)

## 개관 3주년 기념행사

효양도서관 개관3주년을 기념하여 시민과 함께 축하를 나누고, 잠재적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초대하고자 생일축하 케이크 만들기, 인형뮤지컬, 독서대꾸미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생일축하 케이크 만들기



이들 정조 공연



우드버닝을 통한 나만의 독서대 만들기

# 효양도서관

## 독서문화교실

도서관을 시민의 지적활동, 문화활동,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독서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부모랑 조물조물 책놀이



(상반기)책놀이 지도사 3급

## 도서관주간 행사

제53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다독다독,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리본헤어악세서리만들기



부모독서코칭



원목책꽂이만들기



이상화 작가초청강연



## 주말프로그램

주말동안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너.우리가 함께하는 책놀이 (상반기)



동화랑 남남남 (상반기)



두뇌트레이닝 온가족 보드게임 (상반기)



매직 그림자 레이저 쇼 (하반기)



캘리그래피 배지 만들기 (하반기)



캘리그래피 텀블러 만들기 (하반기)



## 독서의 달 행사

독서의 달 9월을 맞이하여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독서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다.



무지개 피자와 동화여행



과학으로 레고만들기



원화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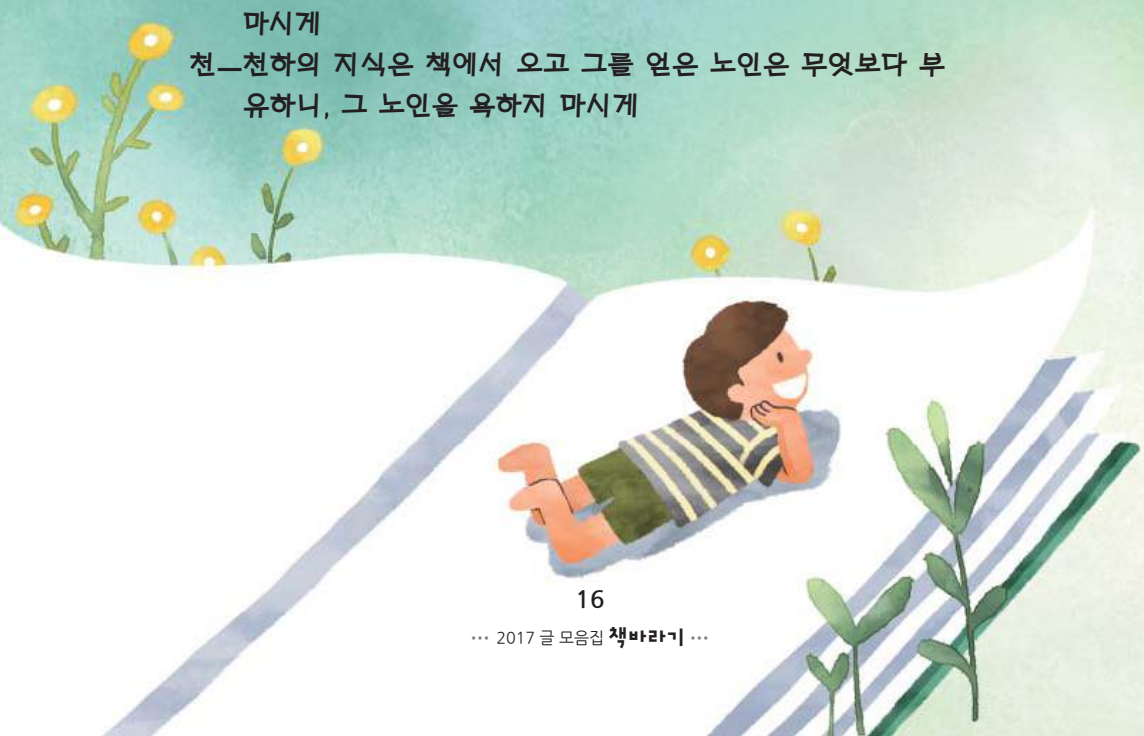
“책읽는 이천” “책읽자 이천”  
5행시 짓기 공모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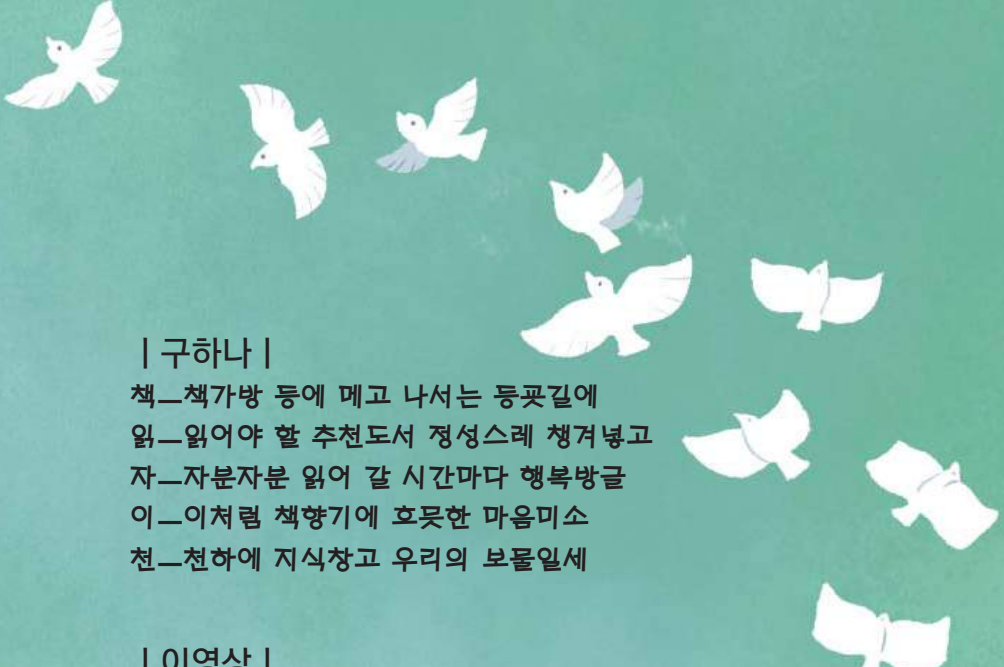
| 조금선 |

책—책이랑 삶이랑 어울려 옥닥복닥  
읽—읽어내는 눈동자에 보물이 그득그득  
는—는개비 자박자박 대지에 내리는데  
이—이 비 그치면 청초롬한 윤슬이  
천—천혜의 보석으로 가슴속에 여울지다

| 신건이 |

책—책장을 넘기는 노인의 주름진 손에 남은건 그 책 한권뿐이오  
읽—읽어 내려가는 그 책 한권 뿐이오  
자—자신에게 주어진 유흥또한 그 책 한권뿐이오  
이—이런 노인을 욕하지 마시게, 책 한권 뿐인 그 노인을 욕하지  
마시게  
천—천하의 지식은 책에서 오고 그를 얻은 노인은 무엇보다 부  
유하니, 그 노인을 욕하지 마시게





| 구하나 |


책—책가방 등에 메고 나서는 등갓길에  
읽—읽어야 할 추천도서 정성스레 챙겨넣고  
자—자분자분 읽어 갈 시간마다 행복방글  
이—이처럼 책향기에 흐뭇한 마음미소  
천—천하에 지식창고 우리의 보물일세

| 이영상 |

책—책은 보배다.  
읽—읽으면 읽을 수록 더 읽고 싶은 책  
자—자랑스런 이천, 살고 싶은 이천  
이—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천으로 시집오길 잘했다.  
천—천치 같이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살자.

| 이상온 |

책—책 읽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읽—읽어 보지 않은 이는 모른다네  
자—자연스레 스며드는 인문의 향기는  
이—이천 시민의 품격을 높여주네  
천—천 송이 장미의 향기로도 덮을 수 없다네



### | 배성한 |

- 책—책벌레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읽—읽을 책... 충분한 도서를 도서관과 서점에 배치하여 책벌레들이 지낼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자—자세한 보도는 9시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상 이천시립도서관 앞 단식 투쟁현장이었습니다.  
천—천고마비의 계절... 우리모두 한번쯤 책벌레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봐야 하지 않을까요?

### | 김정현 |

- 책—책을 우리가족모두 가까이 할수있는 곳 청미도서관  
읽—읽을거리 볼거리가 많이있는 이천시립도서관  
자—자자하게 입소문이난 호양도서관  
이—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의 신나는 놀이터  
천—천마디 백마디 말보다 한번가면 계속가고싶은 이천의 도서관들..



| 현미정 |

책—책배달서비스 알고 계신가요?

읽—읽고 싶은책 신청하면 배달해드려요

자—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이—이천원이면 관내 어디든 희망장소로 바로가는 편리한 서비스...  
비싸다구요?

천—천만이에요.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보는 무료책배달도 있습니다.

| 임현서 |

책—책을 읽고 있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읽—읽었던 책 모두 꿈속에 오려나봐요. 꿈속에서

자—자유롭게 하늘을 날다가

이—이천 개의 무지개를 보고

천—천개의 꿈을 안고 돌아왔어요.

| 신승우 |

책—책은 보물 상자 같아요.

읽—읽을수록 보물들이 가득해요.

자—자! 이천의 어린이들 책을 많이 읽어요.

이—이 책 저 책 많이 읽어요

천—천개의 만개의 보물이 쏟아져 나올거예요.

| 정은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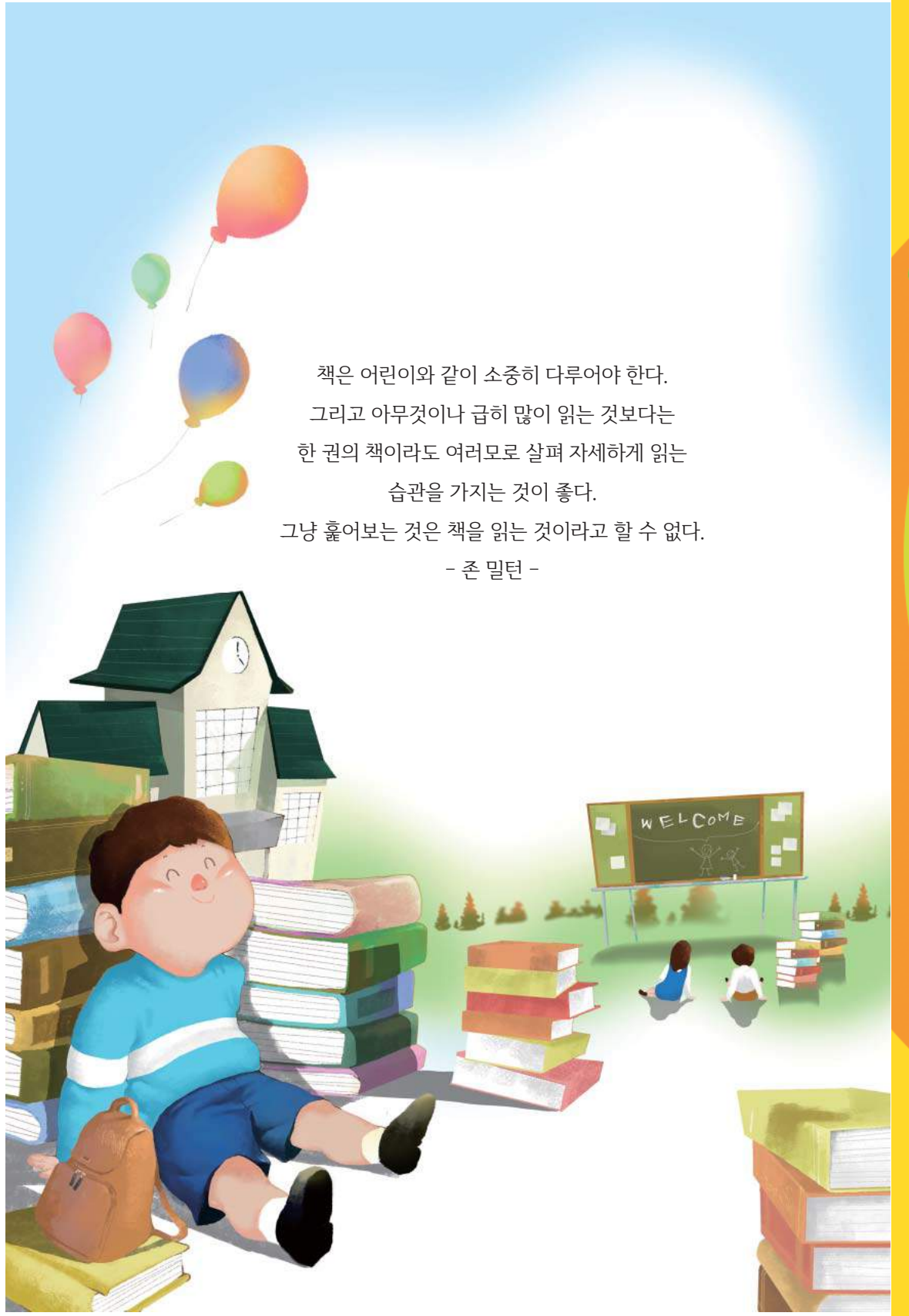
책—책 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읽—읽으면 읽을수록 더 빠져들고,

자—자신의 꿈에 더 가까워져요.

이—이천 사람들 모두

천—천고마비 계절에 같이 책을 읽어요.



책은 어린이와 같이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것이나 급히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이라도 여러모로 살펴 자세하게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냥 훑어보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존 밀턴 -



2017 독서감상문 공모 수상작

## 초등부

- | 박인엘 | 대 상 / 노근리, 그 해 여름
- | 권보민 | 금 상 / 희망을 주는 암탐지견 뽀뽀
- | 박성연 | 은 상 / 장발장
- | 류수현 | 동 상 / 머리가 좋아지는 만화1
- | 최서란 | 장려상 / 나 하나쯤 뭐 어때?
- | 정유림 | 장려상 / 으랏차차 동보클럽





# 노근리가 간직한 아픔, 그리고 우리의 소망

## 《노근리, 그 해 여름》

박 인 엘

【진가초등학교 5학년】



심사평 : 6.25전쟁이라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이 책을 통해 접하면서 글쓴이가 깨달은 점을 매우 훌륭한 문장력을 갖추어 잘 씀. 특히 전쟁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전체로 시야의 폭을 넓혀 다룸으로써 책을 통한 폭넓은 경험의 확장을 잘 이루어 낸 점이 매우 바람직함.



'탕, 탕, 탕!'

이것은 문 두드리는 소리도, 장작 꺾는 소리도  
아니다.

이것은 두두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와 한  
생명, 두 생명, 빛을 못 보게 목숨을 앗아간다.

이것은 총소리이다. 다시 들려온다. 두두두두....

얼굴에 피가 튀는 동시에 들리는 비명. 이번엔 누가 죽었을까? 또 내일은 누가 죽게 될까. 언젠가는 나도 저리 되겠지. 미국 코쟁이들이 쏘는 이 총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퍼런 도깨비불 같은 날이 선 눈 때문에. 오늘도 이 쌍굴에서는 피가 멈출 줄을 모른다. '차라리 내가 보잘 것 없는 파리였으면...'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 천 번은 든다. 거세게 달려오는 총알들도 요리조리 피해 자유로이 날아가는 파리.

눈 앞에 신기루와 같이 어렴풋이 보이는 평화로운 숲속. 아, 어서 이 쌍굴의 핏물을 뱉어내고 맑디 맑은 대동강 물을 마시고 싶다. 무섭다. 불안하다. 미칠 듯이 괴롭다. 아름다운 저 산 너머 땅을 밟는다면 나는 여한이 없으리라! 이대로,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 쌍굴, 공포의 구멍에서만 벗어나 꿈의 땅을 밟을 수 있다면...

'탕! 탕! 탕!' 앓, 또 총소리.

만일, 이것이 나의 실제 이야기라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어떨까? 충북, 영동군에 가면 노근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고, 그곳에는 큰 쌍굴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마을 옆에는 경부선 철도도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마을과 이 마을의 쌍굴은 그저 평화롭고 평범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곳은 1950년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곳입니다. 피란을 가던 선량한 주민들을 가두고 미군이 무차별 총격을 하던 곳. 비명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 바로 이 노근리 마을의 쌍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찌하여 이런 비극을 맞게 되었을까요? 왜 타국 군이 들어와 무자비한 총격을 일삼아도 가만히 당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노근리의 비극이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미국과 우리 정부. 하지만 그 당시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증언하였고, 몇몇 미국의 양심있는 기자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역사의 아픔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아니면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픈 역사적 사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을미사변, 을사조약, 위안부, 그리고 6.25 전쟁까지. 이것들 말고도 감춰진 아픈 역사가 분명히 더 있을 것입니다. 을미사변은 우리나라의 왕비, 명성왕후께서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되신 사변입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것을 지켜보았던 유럽의 장군 등의 증언으로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까지의 많은 아픈 역사들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외국인들의 증언이 아니라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역사도 없는 의식없는 민족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이시자 슬픈 역사를 몸으로 겪으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으시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분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하였다면 지금도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은 정작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역사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겪으신 산 증인들이 지금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역사를 부인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살아있는 역사의 진실,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을 가진 이들이 죽어가면서 결국 우리의 역사의 진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무참히 잊혀져 갈 것입니다.

지금 노근리에는 포도밭이 많고, 경부선 철도 위에는 기차가 무심하게 달려갑니다. 백마산에는 계절을 따라 꽃들이 피고 지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950년의 비극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근리가 가진 아픔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게 된 노근리의 모습처럼 우리도 전혀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아프더라도 그 고통을 들춰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테니까요.

'자장자장 어리자장 은을 준들 너를 사나 금을 준들 너를 사나 어리어리 어리자장'

그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자장가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눈가와 귓가에 항상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고 가져야

할 참된 우리의 소망,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우리 역사를 유지하고  
그 아픔들을 덮고 일어나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금상

# 희망을 주는 암탐지견 뽀뽀

## 《희망을 주는 암탐지견 뽀뽀》

권 보 민

【증포초등학교 5학년】

■ ■ ■

**심사평 :** 희망을 주는 암 탐지견 뽀뽀를 읽고나서 알게된 점과 느낀 점, 실천하고 싶은 점을 체계적인 언어로 잘 표현함. 특히 등장인물의 상황이나 심리에 공감하는 부분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음.



나는 오늘 이 책을 읽고서 암탐지견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친구들한테도 추천했다.

이 책에 나오는 강아지 뽀뽀는 처음에 떠돌이 개였는데, 주인공의 가족을 만나고 집에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주인공(남자아이)의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할아버지를 보고 짖게 되었다. 저번에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줌마께도 짖어댔었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한테 짖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 남자아이와 그 남자아이의 아빠가 짖지 말라

고 화를 내셨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아빠가 말했다. 그런데 정말 암이 맞았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암을 초기(1기 쯤에)에 발견할 수 있어서 금세 치료를 받고 병이 나왔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어떤 연구원이 뽀뽀네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뽀뽀를 연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뽀뽀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들은 다행히도 집에 있어도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뽀뽀가 연구 도중 죽고 말았다. 뽀뽀는 연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보다. 잠 잘 시간도 없이 계속 연구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뽀뽀의 원래 가족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뽀뽀의 새끼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다. 아…. 뽀뽀의 새끼들도 뽀뽀와 같이 데려갔었던 것 같다. 그리고 뽀뽀의 새끼가 3마리 있었는데 그 새끼들 중 한 마리는 뽀뽀의 원래주인에게 갔다. 그 새끼강아지는 정말 건강했다. 3마리 중에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올라있었다. 나도 그런 새끼의 모습을 책의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진짜 통통하고 너무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갑자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지 못한다.

정말 안타깝다. 나중에는 뽀뽀 같은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보면 유기견 보호소에 데려다 줄 것이다. 키우고 싶겠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 강아지를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강아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리고 물론 그 강아지가

나를 좋아해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면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내가 유기견보호소에 데려다 준 강아지가 나를 좋아해준다면 나는 그 강아지를 보러 거의 매일 유기견 보호소에 찾아갔을 것이다. 나는 유기견 보호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잘 찾아서 데려다 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어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잡지도 못하고, 유기견 보호소에 데려다 주지도 못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의 암이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암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나는 암을 정말 무서워하고 싫어한다. 그리고 암에 걸리면 항암치료도 꾸준히 받아야하기 때문에 암이 싫다. 나는 병원이 싫은데 암에 걸리면 병원을 거의 맨날 가야할 것이다. (항암치료 때문에 말이다) 나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암을 초기에 발견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뽀뽀가 정말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뽀뽀가 되게 순한 강아지인데, 짖는 것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의 아빠가 할아버지께 암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을 것이다.

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뽀뽀가 불쌍하게 여겨진다. 뽀뽀가 신문에도 나와서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는 그런 조금의 인기가 있었는데, 그 뽀뽀를 아는 사람들이 뽀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면 벌써 슬퍼진다. 뽀뽀가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스

렵고, 순해서 예뻐고 ….. 그런데 그런 뽀뽀가 하늘나라로 가다니..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절망을 하면서 거의 일주일동안 학교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가 허락만 하신다면. 진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하루종일 울어서 눈이 탕탕하게 부어있을 것 같다. 그만큼이나 나는 뽀뽀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뽀뽀가 정말 불쌍하게 느껴진다. 뽀뽀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뽀뽀가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뽀뽀가 주인공이랑 살 수 있었을 텐데,,, 뽀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아직 오학년 밖에 되지 않아서, 나의 소중한 가까운 가족들이 아직 죽지 않아서, 한번도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주인공과 주인공의 가족의 마음이 상상은 가지만(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다.)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어서 감정이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뽀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뽀뽀에게 말하겠다.

"뽀뽀야, 너는 정말 대견스러워.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귀엽고, 예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해!!"

은 상

## 장발장

## 《장발장》

박 성 연

【송정초등학교 5학년】

■ ■ ■

**심사평 :** 장발장이 빵을 훔치게 된 행동 자체보다 그런 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환경,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석으로 내모는 모순된 사회의 구조를 통찰력있게 잘 묘사함. 인간 장발장에게 갖는 이해와 연민, 따뜻한 시선이 느껴짐.



장 발장은 누나의 남편이 죽자, 일곱 명이나 되는 조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일거리가 없는 겨울철이 되어 조카들이 굶주리자, 빵을 훔치다 잡혔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사냥을 했던 것이 들통나 5년 징역에 처했다. 장 발장은 조카들이 굶어 죽을 것이 걱정되어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 감옥에서 풀려

난 뒤에도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잠 잘 곳도 밥 먹을 곳도 구하지 못하던 그는, 미리엘 신부의 호의를 경험하고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버린다. 이후 장 발장은 파리 북쪽의 조그만 도시에서 마들렌이란 이름으로 구슬 공장을 운영하며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간다.

어느 날, 마차에 깔린 포슈르방 노인을 구한 일을 계기로 시장이 되지만,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자베르 형사로부터 장 발장이라는 의심의 받으면 계속 쫓겼다. 그의 의심은 더 커지고, 자베르는 파리 경찰서에 그를 신고한다. 그러다 다른 사람이 장 발장으로 누명을 쓴 덕분에 의심이 풀렸지만, 장 발장은 죄 없는 사람이 자기 대신 감옥에 가게 되었음을 알고 고민하게 된다. 고민 끝에 장 발장은 법정에서 출두하여 자기 정체를 밝히고 무자비한 자베르한테 즉시 체포되어 무기징역수가 되어 틀롱 감옥에 갇히지만 익사 사고를 가장하여 도망친다.

그리고 악독한 여관 주인 테나르디에로부터 코제트를 구해 낸다. 코제트는 예쁘게 자라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결혼한다. 장 발장의 고백으로 마리우스는 장 발장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 코제트를 만나지 못한 채 외로이 지내다가 깊은 병에 들게 된다.

그러다 마리우스는 자신에게 돈을 뜯어내려던 테나르디에를 통해 비로소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 마들렌 시장이 바로 장 발장이었고, 장발장이 자베르를 살려 줬으며, 또 마리우스 자신까지 구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비로소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함께 장 발장을 찾아가지만, 장 발장은 그리운 코제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거둔다.

나는 장 발장이 처음에는 도둑질을 해서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뒤로 점점 갈수록 착하고 선행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을 계속 쫓았던 자베르 형사도 살려 준 것도 착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 발장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

장 발장은 과거의 사소한 잘못 때문에 지나친 처벌과 고통을 받았다. 그를 불행에 빠뜨린 것은 당시의 잘못된 법률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뭐 나만 그 법에 걸리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법을 만들었을 텐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법률 때문에 장 발장은 지나친 고통과 불행에 빠졌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장 발장이 그런 불행을 겪으면서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버린 것에 너무 감동 받았다. 비록 장 발장이 그리운 코제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거둔 것은 슬프지만 많은 내용이 본받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책을 많이 접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동화 속 인물이 되어 상상도 하고 동화 속 인물의 마음도 이해해 보는 경험이 많아지면 좋겠다.

나는 이미 장 발장 책을 많이 읽었는데 장 발장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장 발장이 되어서 장 발장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장 발장은 참 좋은 책이다. 또한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다. 또 많은 감동을 주는 책이다. 또 많은 착함과 선행심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장 발장을 읽어보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 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장 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충분히 될 만한 책이다. 왜냐하면 장 발장은 선행심과 착함을 보여주는 장면도 많이 나오니, 지금 우리 시대에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면 그런 사람들도 배려심이 많아지고 착해지면서 역지사지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장발장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 감동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하고 싶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감동을 천천히 전달해 주면 내 감동을 전해 받은 사람들도 장 발장을 읽을 것 같다. 정말 좋은 책이다.


 등상

# 문제를 해결하는 재치

## 《머리가 좋아지는 만화 1》

류 수 현

【한내초등학교 2학년】

■ ■ ■

**심사평 :** 톰 소녀의 모험을 읽고 나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된 과정을 진솔하고 따뜻하게 잘 표현함. 특히 주인공의 삶의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음. 독자와 삶을 잘 연계하였고, 이를 통한 깨달음을 잘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함.



엄마가 항상 주황색을 얘기할때는 '힘내라 주황색'이라고 얘기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고를 때도 "힘내라 주황색" 하면서 주황색 음료를 고른다. 그래서인지 언젠가 부터 나도 주황색만 보면 "힘내라 주황색"이라고 하면서 먼저 손이 간다. 이 책이 주황색 표지라 나도 모르게 "힘내라 주황색"이라고 하면서 고른 것이다. 나도 주황색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대출 받게된 이 책은 세계 여러나라 위인들의 일화와 많은 책속의 작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책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재치가 담긴 이야기와 위험을 물리치는 지혜가 담긴 이야기와 현명한 판단이 있는 이야기, 따뜻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교훈적인 이야기들로 분류 되어 있다. 난 그 중에서 내가 무심코 읽었던 [툼 소녀의 모험]에서 툼 소녀가 울타리 페인트 칠 문제를 해결하는 재치가 실려 있는 부분을 정리하려고 한다.

[툼 소녀의 모험] 속 이야기에서 울타리 페인트칠 하기 싫은 툼이 피를 내어 친구들에게 페인트칠을 시키는 장면이 있다. 예전에 툼 소녀의 모험을 읽었을 때 그냥 툼의 장난스러운 잔피에 그냥 웃고 넘어 갔던 부분이였다. 페인트칠하는 날도 자고 일어나면서 어떤 장난으로 친구들과 폴리아주머니를 놀래줄까 하고 생각하는 툼 소녀의 별난 일상 중 하루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 툼 소녀의 페인트 칠 부분만 특별히 얘기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숨어 있다는 뜻인 것 같았다. 글을 읽고 곁들여진 만화도 보니 쉽게 이해되었지만 시간을 두고 곰곰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툼은 페인트칠이 지루하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한다. 일을 억지로 하면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인데 걱정이 된다.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친구 벤이 툼에게 즐거운 토요일에 페인트칠이나 하면서 일을 한다며 놀린다. 툼은 벤에게 페인트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며 숙련된 사람만이 하는, 전문적이고 즐거운 일이라 얘기하며 벤에게 자랑한다. 나는 툼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 이

런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벤은 콧노래를 부르며 진지하게 즐겁게 페인트칠을 하는 톰을 보자 자신도 페인트칠을 하고 싶어한다. 벤이 페인트칠 한번 하게 해달라고 조른다. 하지만 톰은 페인트붓을 절대로 넘길 수 없다고 한다. 벤은 자기의 사과를 주면서 페인트칠을 시켜달라고 한다.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톰은 페인트붓을 벤에게 준다.

아이쿠, 벤이 장난꾸러기 톰에게 속아 넘어갔네! 벤은 페인트칠을 하면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양 즐거워했다. 즐겁게 페인트칠을 하는 벤을 본 많은 친구들이 페인트칠이 재미있어 보인다. 그 재미있는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사과, 과자, 빵, 야구공과 글러브, 장난감 등을 톰에게 주며 줄을 선다. 많은 친구들 덕에 울타리 페인트칠은 아주 깨끗하게 두 번 덧칠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잘 칠해졌다. 페인트칠이 끝난 후 깨끗해진 울타리를 폴리 아주머니에게 보여준다. 폴리 아주머니는 톰이 울타리를 다 색칠 한 줄 알았다. 그래서 폴리 아주머니는 톰을 많이 칭찬한다. 나도 웃으면서 톰을 칭찬해 주고 싶었다.

톰은 울타리 페인트칠 하지 않고 편하게 쉬어서 즐겁고 또 친구들이 챙겨준 선물로 이득이 생겨서 즐겁고, 벤과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울타리 페인트칠을 실컷해서 즐겁고, 폴리 아주머니는 울타리가 페인트칠이 되어 집이 깨끗해 보여서 즐겁다. 또 굉장히 빨리 울타리 페인트칠이 끝나서 남는 시간에 놀 수 있는 톰이 즐겁다. 누구 하나 나쁜 것이 없다.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이들이 있으니 모두 다 잘 된 것 같다. 톰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톰은 최고인 것 같다. 모두를 즐겁게 일하게 하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톰이 CEO가 되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생각만 달리하면 모두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며 어렵고 힘든 일도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다.

어제 나는 이 더위에 공부한다고 짜증내고 태권도 가기 싫다고 인상쓰고 징징대었다. 이제 부터 나는 한번 크게 미소 짓고 어차피 하는 공부와 운동을 밝게 웃으면서 해야겠다.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엄마가 보고 맛있는 간식을 해주실지 모른다. 누나들도 공부하는 나를 덜 괴롭히겠지. 태권도장에서 매일 장난 걸던 친구도 나를 보면서 열심히 운동하겠지. 그렇게 하다보면 곧 이 뜨거운 여름도 즐겁게 지나가겠지. 그러면 모두 다 즐거운 하루하루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나도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나겠지!!

장려상

# 올바른 공공장소예절 지키기

## 《나 하나쯤 뭐 어때?》

최 서 란

【증포초등학교 5학년】

■ ■ ■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러한 사고의식으로 공공장소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나 하나가 아니라는 사고 의식을 가지고 공공장소 예절을 지켜야 한다. 나는 공공장소 예절 중,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 때문에 생긴 지구온난화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덕시간에 "당신은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시(공익광고)를 보았다.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당신은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2시간 후, 비닐봉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샴푸를 마음껏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쓸데없는 광고를 왜 만든 거야?"라고 생각하는지 알면서도 이 몇 백만 몇 천만 하는 이 광고

를 만드는 이유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길로 지구 온난화가 1%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광고이다.

나는 이러한 광고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우리 모두의 지구 바로 당신의 작은 배려가 당신의 지구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우리의 바른 지구, 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영화를 볼 때의 예절과 진정한 영화관람을 위하여 해야할 일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영화는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다 올라가면 나오는 영화음악도 있다고 한다.

[선서!(영화관)]

나는 이제부터 영화관람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좌석표를 확인하여 좌석에 앉고, 핸드폰의 전원을 미리 끄며, 영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교양 있고 매너 있는 학생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최서란

[선서!(음식점)]

나는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엇질렀다면 부모님이나 종업원에게 말하고, 음식으로 장난치지 않고, 식탁을 두드리며 장난을 치지 않겠습니다. 만약 뷔페식당이라면 차례를 지키고, 음식은 꼭!!! 먹을 만큼만 담아오겠습니다. 또한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음식을 꼭꼭 삼킨 뒤에 말하겠습니다. 포크 같은 식기를 떨어뜨렸을 때는 주우

려고 하지 말고 종업원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을 흘렸으면 깔끔하게 치우고 정 못하겠으면 어머니 종업원에게 말하겠습니다. 뛰어다니거나 장난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음식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위의 모든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 합니다.

[선서!(교통수단)]

지하철에서는 휴대전화를 진동모드로, 통화를 해야 한다면(안 하는 것이 더 좋음)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하고 출입문을 가로막지 않으며, 대화를 조용 조용 하겠습니다. 맹인견이 탔을 때는 맹인견을 만지지 않고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중요!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사람이 많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또한 뛰거나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짐을 놓지 않고, 음악 소리는 나 자신에게만 들리도록 소리를 줄이고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앉지 않겠습니다.

[선서!(도서관)]

읽은 책을 제자리에 꽂아 놓고 음식물을 먹지 않고 도서관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놓겠습니다. 책장을 찢거나 낙서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소리내어 책을 읽지 않고 신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건넵니다. 위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약속하고 또 약속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자!!! 우리주변에는 도서관, 영화

관, 은행, 극장, 공중목욕탕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다. 이런 곳을 공공장소라고 한다. 그런데 모두가 즐겁게 사용해야하는 공공장소에서 자신만 편하고 좋으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다보면 우리 사회는 명랑하고 즐거운 사회가 될 거다!!!

그런데, 나도 가끔은 지켜야할 것이 너~~무 많고 귀찮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걱정은 필요 없다. 행동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행동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불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는 나 하나만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 모두 밝고 즐거운 사회를 만들자!!! 우리 모두가 즐겁고 더불어 살아가는 큰 마음 넓은 마음으로 아주 작은 기본(공중도덕)부터 시작하자!!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불쾌했던 적이 있나요?? 혹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고 불편하게 한 적은 없나요?? 이제 나 하나 썸이야 라는 생각은 버려요. 즐거운 생활은 공공장소 예절(공중도덕)을 지키는 데부터 시작 됩니다.

여러분! 남의 생활을 보기 전에 나부터 되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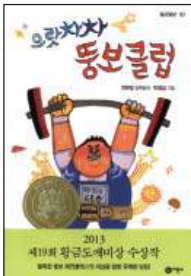
# 으랏차차 똥보클럽

## 《(으랏차차) 똥보클럽》

정 유 림

【증포초등학교 5학년】

■ ■ ■



나는 이 책을 읽고 많은 걸 배우고, 이 책을 읽고 느낀 점도 많아지게 되었다.

나는 은찬이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 이유는 은찬이가 자신은 똥똥해도 남들과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고, 할머니가 눈이 안 좋으신 걸 알고 할머니 수술비를 대드리려고 은찬이가 노

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조금 예술이에게 좋은 말과 충고를 해주는 말도 해주고 싶다. 그 말은 은찬이는 너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실수를 해서 네가 만든 작품을 떨어트린거야. 내가 너라도 속상하고 기분 나빴을 거야. 하지만 네가 속상한 거 알지만 네가 은찬이에게

그렇게 말하면 은찬이도 너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야.

그리고 좋은 말은 네가 몸이 불편해도 평범한 우리들과 다를 것 없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내가 마음이 몽클했어.

나도 양쪽의 눈 크기가 조금 다른데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어. 하지만 내가 항상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내가 눈 크기가 다르든 말든 상관없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었어.

"나는 장애인이지만 남들과 다를 것이 없고 평범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운 적도 있었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항상 감동을 받아.

그리고 역도란 운동은 며칠 만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야. 역도도 하기 전에 먼저 기초 체력부터 키워야해 근데 은찬이 너는 마음을 먹고 항상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준영아 네가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무시를 하면 장애인들은 기분이 나빠 장애인들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도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네가 불리하다고 무조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네가 혼자 할 수도 있어야 돼.

네가 대학을 가셔도 맨날 엄마엄마 할 수는 없잖아. 이제부터라도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보면 너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야^^.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면 바로바로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할머니님이 위험하실 수가 있잖아요. 할머니께서는 은찬이와 은찬이 어머니를 걱정 시키실까 봐 말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편찮으시면 바로 은찬이와 은찬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편찮으시면 바로 병원 가세요!!!

은찬이 어머니! 은찬이가 몸이 더 안 좋아지시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억지로 행동을 하시면 은찬이도 더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찬이가 알아서 식단조절을 하게 두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도는 위험한 운동인 걸 알고 안 시키는 것이지만 은찬이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찬아, 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가 역도를 한다고 했을 때 책이지만 놀랐어. 역도는 엄청 힘든 운동이니까 놀랐어 역도는 며칠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래 배우고 또 배워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 하지만 역도는 상처를 많이 입을 수 있어 근데 네가 이렇게 해낸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었어. 난 네가 처음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네. 그리고 철민이 형한테도 고맙다고 꼭 말해. 코치님도 있지만 진정한 코치님은 철민이 형인 것 같아^^. 그리고 예술이와 영대, 찬영이, 재민이, 병찬이 그리고 준영이랑도 모두 모두 친하게 지내.

그리고 앞으로도 역도에서 좋은 결과로 쪽쪽 나아가길 바랄게.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정유림입니다. 저는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독서마라톤이란 것을 보고 엄마랑 언니랑 저랑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기만 하지 않고 독후감도 쓰니 저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빌린 것 중에서 '으라차차 똥보 클럽'이라는 재미있는 그림과 제목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의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전 이 책에서 예술이가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찬이가 똥똥해도 다른 사람이랑 할 수 있는 게 다를 것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은찬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은찬이가 역도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은찬이가 해내길 바랬었습니다.

저는 지금 12년 동안 다 읽은 책 중에서 길지만 으라차차 똥보 클럽이라는 책이 제일 재미있었고 감명 깊게 책을 본 것 같습니다.)



---

2017 독서감상문 공모 수상작

---

## 중등부

- | 이상윤 | 대 상 / 맨홀
- | 이가영 | 금 상 / 가자에 띄운 편지
- | 박지은 | 은 상 / 철수는 철수다
- | 김동준 | 동 상 / 키싱 마이 라이프
- | 이에진 | 장려상 / 열일곱, 최소한의 자존심
- | 지아현 | 장려상 / 천국의 책방2





# "맨홀"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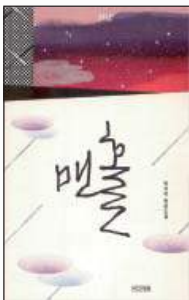
## 《맨홀》

이 상 윤

【효양중학교 3학년】



**심사평 :** 사회적 약자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가 매우 진솔하고 진중함. 특히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매우 논리있게 다루었으며, 책의 내용을 통해 제목의 상징성을 유추해 보는 등 뛰어난 문학적 소양과 통찰력을 보임.



나는 이 책이 나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친구의 권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을 읽던 중, 가정폭력을 받은 주인공이 청소년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주인공을 소재로 한 책이 나와 잘 어울린다고 한 친구의 말에 화가 났고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책을 다 읽은 후, 아, 이래서 그 친구가 이 책의 주인공처

럼 어떤 생각에 얽매여서 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감추려 했던 나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유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의심했던 게 미안했고 고맷다.

이 책의 이야기 구성은 액자형 구성으로, 현재 살인을 저질러서 재활센터에서 치료 받고 있는 주인공이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데까지의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회상하면서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현재 살인을 저질러서 재활센터에서 치료 받고 있는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받아왔었다. 맞고만 있었던 어머니를 외면하고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폭력을 피하려 밖에 나갔던 어느 날, 어느 공사장에 있는 맨홀을 찾게 되었고, 누나와 함께 종종 그곳에 갔었다.

어느 날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아버지가 소방관으로서 재봉 공장에서 16명의 생명을 구하고 순직한 "영웅"이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죽은 후 누나는 배우라는 꿈을 찾았고, 어느 날부터 맨홀을 떠났다. 그로써 맨홀은 주인공 자신만의 공간이 되었다. 누나가 공연을 핑계로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고 엄마가 간병인 일을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어느 날부터 주인공이 질 나쁜 친구들을 사귀며 방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누나, 어머니와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제일 혐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신이 닮아간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까지 저지르고 심지어 그 시체를 나만의 공간인 맨홀에 유기했다. 그러나 누나

의 조언으로 자수를 했고, 아버지의 소방관 동료들의 도움으로 일반 변호사를 고용하여 보호관찰 1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주인공은 혼자였다. 맨홀을 찾아갔지만 맨홀은 살인사건 이후 막혔다고 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째 아무리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라는 점, 순직하신 아버지가 여러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는 점,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서 심신미약이라는 점으로 죄를 감형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책이라고 해도 현대법을 기준으로 책을 썼을 텐데 현대의 법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둘째, 한국인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다. 이 책에서 주인공 학교의 학생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적에 불구하고 '파키스탄 노동자'를 줄인 '파키'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책의 학생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니 나부터도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 낙관적인 관점이라기 보다는 비관적인 관점으로 쳐다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재네 정말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되새겨보니 "저거 나 아니야? 내가 저렇게 못됐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셋째 작가가 이 책의 제목을 맨홀로 한 이유를 생각해보았는데, 생각한 결과 작가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쉽게 지나치고 무시하는 '맨홀'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우리 주위에

서 쉽게 지나치는) 마치 맨홀 같은 존재들을 찾아 그 사람을 위로 해달라는 의도로 썼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맨홀은 살인사건 이후로 구청 사람들이 구멍을 매웠다. 공사장의 맨홀 구멍은 시멘트로 막았지만, 여기 걸어 다니는 구멍은 필로 매워야하냐고』

나는 이 문장을 봄으로써 주인공의 마음이 확 와닿았다. 막 보호 시설에서 나왔으나, 혼자였던 주인공이 자신의 유일한 공간이었던 맨홀이 막혀있자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주인공의 심리가 꼭 나의 예전 모습 같아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정신적으로 한 층 더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 친구가 이 책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 못 했던 나에게 이 책을 소개해준 것처럼, 나도 이 책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겠다.



# 소통의 힘

## 《가자에 띄운 편지》

이 가 영

【효양중학교 2학년】

■ ■ ■

심사평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과 이로인해 무참히 희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잘 풀어나갔으며 이를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치유하려는 글쓴이의 통찰력이 매우 뛰어남.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 우리 인간의 삶 전반에 확장시켜 적용함으로써 독자들이 다시 한 번 전쟁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함.



21세기 우리는 소통이 절실하다. 혼술, 혼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요즘 세대. 우리는 더 이상 눈을 마주보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세대 차이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소통을 멀리하고 있다.

막히지 아니하여 오해가 없다는 의미의 소통은 단순히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그 사람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는 갈등의 시발점이 된다. 즉 21세기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문제는 '소통의 부족'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소통을 한다고 하여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통해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통하게 되면 지금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오해하거나, 상대방의 처지를 몰라서 일어나게 되는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분쟁 중이다. 이들의 분쟁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기 70년 로마의 전쟁에 패하면서 시작된다. 로마에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럽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 자리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다시 건설하려는 민족주의 운동 '시오니즘'이 시작된다. 이 운동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모여들게 된다. 결국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곳에 나라를 세웠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지구로

내쫓는다. 이에 화가 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땅은 자신들의 땅이었다며 반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며 우기고, 좁혀지지 않는 양국 간의 의견 차이는 결국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의 민족 이기주의적인 태도는 갈등 해결은커녕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라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두 나라의 민족 이기주의와 소통 부족으로 인한 비극이다.

'가자에 띄운 편지'는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어느 날 예루살렘의 힐렐 카페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 직접 테러를 목격한 경험이 전무했던 이스라엘 소녀 '탈'은 큰 충격에 빠진다. 테러의 충격으로부터 헤어지지 못하던 '탈'은 이런 테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탈'은 다시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름 모를 너에게'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장문의 편지를 가자지구로 보낸다.

가자지구의 해변에 묻혀있던 '탈'의 편지는 이스라엘 청년 '나임'에 의해 발견된다. 편지를 읽은 '나임'은 편지에 적힌 '탈'의 이메일 주소로 편지를 보낸다.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임'과 항상 긍정적인 '탈' 서로 상극인 두 사람의 첫 대화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탈'과 '나임'은 서로를 이해하

고 신뢰하게 되었다. 비록 첫 시작은 삐걱거렸을지 몰라도 '탈'과 '나임'은 편지로 소통을 하며 서로 간의 편견과 오해를 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민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소통했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이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물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소통을 시작했다고 하여 금방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보복공격과 반복된 테러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경계를 쉽게 풀 수는 없을 것이다. '탈'과 '나임'이 그랬듯이. 하지만 '탈'과 '나임'처럼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소통한다면, 언젠가는 서로에 존재 그 자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탈'과 '나임'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분쟁을 통해 우리나라를 보았기 때문이다. 요즘 특하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위협을 하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 넘어야 할 장벽이 아직은 멀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누구도 전쟁이나 테러로 인한 죽음을 원하지는 않는다. 소통을 통해 작은 기적을 만들고, 그 작은 기적들이 모이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나부터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변화를 시도해 봐야겠다. 소통은 얼음같이 차가운 심장도 어느새 따뜻한 심장으로 만들어 주는 힘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국가가 소통을 통해 따뜻한 심장을 갖길 바란다. 3년 후 '탈'과 '나임'이 로마 트레비 분수에서 만날 수 있는 희망을 꿈꾸며...



# 삶의 이유는 공부가 아니며 비교는 악이다.

## 《철수는 철수다》

박 지 은

【효양중학교 1학년】



심사평 : 가정폭력을 당했던 주인공이 여러가지 일을 겪으며 어려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고 감사하는 태도가 잘 드러남. 특히 같은 또래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고민에 공감하는 부분이 매우 진솔하게 잘 표현됨.



(학교와 학원은 어서 물렸거라~ From, 학업 스트레스에 지친 우리들)

요즈음 우리는 철수는 철수다에 나오는 주인공 철수처럼 오직 공부라는 단어에 얽매이며 살아가고 있다. 흔히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국민학교(초등학교)학생 때 밖에서 뛰

어눌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참 힘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아시고도 부모님들은 남들은 다 하니까 우리 아이가 뒤처지기만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학업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다. (나는 학원을 그리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다른 애들은 학원을 기본 2~3개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 학교처럼 의무가 돼버린 학원은 학생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나는 학원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다 다닐 학원 차라리 학교랑 학원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 책의 주인공 철수도 공부에 대한 많은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이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철수의 마음을 모른 채 남의 아들과 대놓고 성적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다. (재는 저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가 너에게서는 노력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더라. 제발 너도 000처럼 열심히 좀 해봐.)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마다 철수는 더 이상 공부의 재미와 즐거움은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 철수의 엄마가 철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여주면 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철수는 엄마의 마음이 감사해서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또 감사한 것 뿐만이 아니라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라도 공부를 할 것 같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철수의 (성적) 근본적인 문제 중 한 가

지는 바로 엄마의 행동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엄마라면 아무리 성격이 낮게 나와도 다독여 줄 수도 있고 위로와 약간의 꾸중도 할 수 있지만 저렇게 남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같아도 남과 비교하다 보면 기분도 나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아!, 나는 왜 안되지? 난 정말 멍청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수의 엄마와 철수는 학업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이나 여러 고민들 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게 하지 말고 정말 부족한 거만 보냈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을 해보면 이쯤 돼서 하는 이야기 모두가, 무슨 이야기든 학업에 지쳐있는 학생들의 원인은 결국 학원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압박과 부담이다. 가끔은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안된다 저건 꼭 해야 한다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 인생인지 부모님의 인생인지 알 도리가 없다. 흔히 부모님들께서는 다 우리 잘되라고 하시는 말이라고 매번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께 잘못을 들키지 않으려는 변명처럼 들리기만 한다. 또한, 그런 말들도 여러 번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날 때도 있다.

요즘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편안하게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것이 청소년들의 마음인데 그 시간마저도 방해받으면 참 힘들고 고단할 것 같다. 또 공부를 더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아직 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지라도

조금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부모님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이 책의 주인공 철수처럼 자신이 힘든 점을 부모님께 꼭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우리의 생각을 잘 모르시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거나 꼭 말하고 싶은 점이 생긴다면 부모님께 자기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가 싫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지라도 우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의 노력과 의지를 외면하지는 않기로 하였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말씀은 다 우리 잘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끔은 부모님들께 소정의 애정표현도 하고 효도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자 그럼 우리 모두 약!속!


 동상

# 키싱 마이 라이프

## 《키싱 마이 라이프》

김 동 준

【증포중학교 3학년】

■ ■ ■

**심사평** : 자신과 비슷한 주인공의 삶의 모습을 통해 청소년기의 문제와 고민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잘 표현하였음.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1학년 때 잠깐 읽다가 말았는데 추천도서에서 이 책이 있길래 다시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다.

책의 줄거리는 이렇다 하연이의 아빠는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행패를 부리고 엄마는 분식점을 하신다. 정수연은 하연이의 언니인데 수연이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다. 하연이에겐 진아라는 라이벌 같은 친구도 있고 진아의 남자친구인 현규, 하연이의 남자친구인 채강이도 있다.

채강이는 다른 애들과 별다를 게 없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하연이는 집이 빈 채강이네를 호기심에 놀러 가게 되었다. 둘은 채강이 형을 흉내 내며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도 내며 점점 취해갔다. 둘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날 밤 실수를 하게 되었다. 하연이는 그 상황에서 이러면 안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몬에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낙태를 하려고 채강이가 꼬박 알바해서 40만 원도 모아 보았다. 하지만 낙태를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하필 하연이네 아빠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 12주가 지나버리고 아기가 너무 많이, 건강하게 자라나버려서 낙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둘은 낳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엄마께 말하지 못하고 결국 가출을 했다. 일단 갈 곳이 없는 하연이는 모텔에서 묵기로 하고 현규와 진아 그리고 채강이 셋이서 알바를 뛰며 하연이 식비를 도와주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현규와 진아는 학업, 시험등을 준비해야하는 나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연이는 미혼모를 돌봐주는 곳인 고운세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된다. 하연이는 걱정하는 엄마 때문에 그토록 싫어하던 수연이 언니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털어놓게 된다.

수연이 언니는 엄마께 하연이를 데리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해주었다. 출산이 다가오며 언제까지나 임신 사실을 숨

길 수는 없어서 결국 사실대로 말하게 된다. 엄마는 하연이를 많이 걱정해 주셨다. 그렇게 하연이는 고생 끝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

'정말 풋사과같이 새콤달콤하게 인생을 즐겨야 할 청춘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성적에 목매달고 친구끼리 피 터지는 탐색을 해야 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이 부분은 정말 인상이 깊었다. 그 이유는 내가 요즘 고민하는 고민거리랑 정말 똑같기 때문이다.

학원 원장선생님께서 내 나이가 이팔청춘이라고 하셨다. 정말 어떻게 이런 상큼한 나이를 공부에 찌들어 보내라니, 진짜 답답하다.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질텐데 정말 끔찍하다. 저 현실을 겪지 않으면 포기자라고 불리게 되는 게 무섭다. 내 꿈은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하연이가 자신의 배를 주먹으로 마구 치며 "징그러운 것아, 없어져라. 없어지란 말이야! 난 이제 어떡하라고!" 라고 했을 때이다. 2학년 때 낙태 찬성반대 토론을 했었다. 그때 나는 낙태에 대해 절대 반대라고 입지를 굳혔었는데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한 여학생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하연이도 나처럼 정말 평범한 여학생이었는데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며 지냈는데 나랑 다를 게 없는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저런 일이 생길까 두렵다. 실수가 아니더라도 진아처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내가 임신을 했어도 똑같이 저렇게 자해

를 하며 낙태하려고 몸부림쳤을 것이다.

세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기숙언니가 자신의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할 때 "아니예요 난 우리 아기 안 보낼 거야 열심히 돈벌어서 아기 키우며 살 거예요."라고 한 부분이다. 뭔가 찡하고 안타까웠다. 기숙언니 남자친구는 책임을 못 진다며 입양시키라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징징대지 말라며 기숙언니를 내팽개쳤다. 나도 만약 저런 무책임하고 양심도 없는 남자를 만날까 봐 겁도 난다. 남자들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한순간의 실수로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도 저런 내가 진짜 힘들 때 힘이 돼줄 수 있는 진이나 현규같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다.

장려상

# 열일곱, 최소한의 자존심을 읽고

## 《열일곱, 최소한의 자존심》

이 예 진

【효양중학교 1학년】

■ ■ ■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가 자주 하시는 말이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하시는데 나에게는 아직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고 열일곱, 3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 잘 연상이 되질 않았다. 그냥 지금 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다 제목이 맘에 들어 고른 이 책은 약간은 불우하고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다섯 명의 학생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는 모습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학교 분위기도 다른 다섯 명이지만 공통되는 점은 결코 가정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무관심 속에서 생활하던 김태용. 이야기를 읽으면서 김태용보다 더 관심이 갔던 것은 학교에서 왕따 취급 받는 몬스터, 김에스터였다. 그녀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수재에다 교칙에 충실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품없는 외모에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고(학교에서 경제 신문을 본다는 건 사실 잘 상상되지 않는다)로 왕따 아닌 왕따 생활을 하고 있던 그녀. 그럼에도 소신껏 전교회장에도 출마하고 불의에 맞서는 모습이 참 매력적으로 보였다. 나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놀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겉으로는 무덤덤해도 에스터 또한 맘속으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두 번째 주인공이었던 원대한. 시인이 되고 싶은 대한이는 감수성이 정말 풍부한 것 같았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알고 공모전에 도전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런데 왜 친구들은 그의 꿈을 비웃었을까? 그의 아버지 말씀처럼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직업이라서? 엄마께서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는 게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아버지가 바랬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모든 교과 과목을 두루두루 열심히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꿈을 갖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한이는 멋있다고 엄지 척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 주인공이었던 전수호. 배가 고파서 교실에 남겨진 우유를 마시고 복도에서 주운 식권으로 저녁을 먹던 수호. 글을 읽을 뿐인데 웬지 사실처럼 느껴져 마음이 많이 아팠다. 우유 먹기 싫다고 신청하지 않겠다고 투덜거렸던 내 모습도 생각나고. 상한 우유 때문에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수호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우유를 포기할 순 없어. 언젠가는 장이 적응 할테지' 상한 우유에 적응해야 한다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반쯤은 포기였을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체념인 듯 느껴지는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

네 번째 주인공이었던 김용덕. 요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인 용덕이는 편찮으신 할머니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교도 잘 다니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었다. 집을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따라잡기 힘든 수업내용과 같은 반이기는 하지만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주변 학생들의 놀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이었는데 그런 쉽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착한 학생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나쁜 길로 빠지지도 않고 긍정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마지막으로 나왔던 가수가 꿈인 노재광. 책에 나왔던 she's gone 이란 노래가 궁금해서 찾아 들어봤다. 역시 제목이 낯익다 했더니 예전에 드림을 배울 때 연주 한 적이 있었던 노래였다. 이런 고음

인 곡을 막힘없이 부를 수 있다니 정말 실력이 좋은 친구인 듯싶었다. 꿈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운이 좋은 친구.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나온 주인공의 음이탈 실수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큰 무대이건 작은 무대이건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니까. 시험에서 아는 문제를 틀렸을 때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랑 같은 느낌일 듯싶다.

단편으로 이루어진 책이라서 그런지 쉽게 읽었다. 그 내용까지 가볍지는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는 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준 것 같다.



## 커다란 감동을 선물해준 책

### 《천국의 책방. 2 : 그녀, 사랑을 추억하다》

지 아 현

【증포중학교 2학년】

■ ■ ■



지난번에 읽은 천국의 책방 1권에 이어 바로 2권을 읽어보았다. 알고 보니까 천국의 책방 시리즈는 여러 권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아직 2권까지 밖에 없다고 한다. 그 사실이 많이 아쉬웠지만 금세 잊고 천국의 책방 2를 읽는데 집중했다.

1권과 2권은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있었다. 우선 공통점은 현세에서 큰 충격이 있었거나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들의 눈은 녹색 눈동자인 것과 낭독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알로하셔츠의 남성이 등장하는 것 등이 있다. 차이점은 1권은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다루었다면 2권은 아빠와 딸의 사랑, 부녀애를 주제로 다루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1권은 화자가 남

자였고 2권은 여자였다. 나는 아직 제대로 된 이성적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2권이 더 좋았다. 아빠와 딸의 사랑을 다루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감정이입이 더 잘 되었다.

이 책에는 이즈미라는 29살의 여자가 나온다. 이즈미는 결혼 사기꾼이었다. 하지만 운이 안 좋은 관계로 칼에 찔려 목숨을 잃고 천국으로 오게 된다. 이즈미는 알로하셔츠의 남자에 의해 조 이치로의 저택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된다. 이즈미는 조 이치로를 보면서 자신의 아빠를 계속 떠올리고 추억한다. 처음에 이즈미는 모든 일이 서툴러서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 발견한 재능이 있었는데 바로 낭독이다.

이즈미는 어쩌다 조 이치로에게 그림책 하나를 읽어주었는데 조 이치로가 그녀의 낭독을 듣고 놀란 후에 이즈미는 계속 조 이치로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이즈미가 불쌍했다. 이즈미는 그림책을 읽으면서도 아빠를 떠올렸는데 이 부분을 읽고서 이즈미가 아빠를 매우 그리워하는 게 느껴졌다. 사실 이즈미와 조 이치로 사이에는 엄청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이즈미의 아빠와 조 이치로의 아내가 사랑하던 사이였던 것이다.

하지만 조 이치로의 아내는 병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만다. 그리고 이즈미의 아빠도 이즈미를 떠났다. 그리고 이즈미는 조 이치로가 자신의 아빠가 사랑하던 여자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엄청 울었다. 책을 읽으면서 폭풍 오열을 했던 것은 이 책이 처음이었다. 이즈미가 29살이 되어서도 아빠를 그렇

게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는데 어릴 적의 이즈미라면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조 이치로 역시 매우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슬프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가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하나 있었다. 이즈미가 어릴 때, 아빠가 이즈미에게 읽어주던 그림책을 보면서 아빠에게 질문하는 내용인데 되게 슬프면서 아련한 느낌이었다. 그림책의 내용은 아기 새가 아빠 새에게 엄마는 언제 오냐고 보채는 내용이었다. 이즈미는 이 책을 읽고서 아빠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말이 엄청 슬프고 가슴 한구석이 찡했다. 바로 "아빠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야? 천사가 마중을 오면 없어져 버리잖아." 이 대사였다.

어릴 때 순수하게 아빠에게 물어보는데 오히려 순수했기에 더 슬펐다. 나는 이 부분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빠는 그 질문에 천사가 와도 이즈미 옆에 있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천사와 함께 없어졌다. 그 모습을 본 이즈미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나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실감이 안 나고 가슴이 안 됐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다.

난 이 책을 절대로 못 잊을 거 같다. 내가 처음으로 엄청 울면서 본 책이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천국의 책방 시리즈가 여기까지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울 뿐이었

다. 나는 이 책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면서 다녔다. 나의 인생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내가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책을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더 슬플 거 같다. 역시 천국의 책방 시리즈는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다. 1권과 2권, 모두 다른 느낌의 감동이었지만 둘 다 이해가 잘 되었고 공감이 잘 되었다. 2권은 1권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물해주었다. 꼭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본 후에 이 감동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다.



2017 독서감상문 공모 수상작

## 고등부

- | 김서정 | 대 상 / 풀꽃도 꽃이다
- | 김나림 | 금 상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 김학수 | 은 상 / 에밀
- | 이유리 | 동 상 / 이방인
- | 선예진 | 장려상 / 나는 중국이 매일 낮설다
- | 조은서 | 장려상 / 왜 학교는 질문을 가르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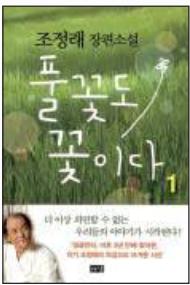
# 이상과 현실

## 《풀꽃도 꽃이다》

김 서 정  
【효양고등학교 3학년】



**심사평 :**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 인간 소외문제, 왕따문제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각도로 잘 풀어 표현하였고, 등장인물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 학교의 모습을 통찰력 있게 묘사한 점이 매우 인상 깊음. 또한 학생의 시선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매우 예리한 시각으로 잘 표현함.



이 엄청난 성적의 끝에 남은 것은 그때까지 남아 있던 일말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나였고, 그 결과 나는 그 이후로 엄마가 하는 모든 말에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 냈다. 어차피 나는 안 될 거다, 나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자 엄마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말싸움 끝에, 네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가 시키는 대로 해라,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판단이 미숙하니 너는 앞으로 성인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며 어머니의 마리오네트가 되기를 종용했다.

나는 이 책의 아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학원 뽕뽕이를 도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이동식 감시카메라와 같은 어머니들의 24시간 감시체제 하에 놓였던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의 기분은 참혹했다. 결국, 나는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싶기도 했고, 그렇게 살면 나는 정말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다. 그 아이들보다는 적어도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나조차도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렇게 억압받은 삶을 살아온 끝에 자신의 이상마저 지우기를 종용받은 아이들의 기분이 과연 어떠한지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것은 아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란 것은 알겠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이 명문고등학교를 나와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의사나 판사, 검사처럼 '사'자 직업을 갖고 돈을 잘 벌며 뚱뚱거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냐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강교민도 그러했다. 그는 15년째 교단 앞에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임원인 그의 친구, 유현우보다 연봉이 적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강교민이 유현우보다 불행하냐, 타인

인 나조차도 그것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강교민은 유현우보다 훨씬 질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있고,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때의 그 '나은 삶', '행복한 삶'을 판정하는 기준이 돈이라면 분명 유현우는 강교민보다 더 행복해야 할 것이다. 세상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오직 돈이라면, 강교민보다 연봉이 다섯 배가량 많은 유현우는 강교민보다 다섯 배가량 더 행복해야 하지만, 그런 유현우에게는 어머니의 욕심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계획하는 아들이 있고, 자신의 욕심이 아들에게 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인도 있다.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할까. 유현우의 부인과 유현우가 마음을 고쳐먹었기에 망정이지, 사실 처음 유현우의 부인이 강교민에게 말하는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읽으며 나는 지원이가 정말로 자살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책에도 다행스럽게도 숨구멍은 존재했다. 주인공인 강교민과, 다른 학교의 임기범, 강교민의 사촌동생인 이소정과 같은 선생님들이었다. 특히 나는 이 책을 읽고 강교민의 그 신념과 인간성에 반했다. 강교민은 아버지로서도 멋졌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멋졌고, 선생님으로서도 멋졌고, 한 인간으로서도 멋졌다. 왜 그 전지전능하다는 신은 1학교 1강교민 보급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

강교민은, 단 하나의 낙오자도 없게 한다는 교육 철학을 가진 인

물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학교가 돌아가는 걸 보면 공부 잘하는 상위 몇 프로만 집중적으로 봐 주고, 관리를 해 주며 나머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꼭 상위 몇 프로의 들러리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은 것이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 쏟아붓는 만큼의 관심을 써 주지 않지만 강교민은 자신이 담임이 아닌 학생의 일에도 기꺼이 나서 주고,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희망을 말해 주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해주려 노력하는 등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은, 어쩌면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내 준다. 그렇다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어차피 잘할 테니까, 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교민이 학생들에게 보내주는 존중과 이해, 신뢰에 보답하듯, 모든 학생들은 적어도 강교민만큼은 존경한다. 우리 학교에 강교민이 있었다면 나 역시도 선봉에 서서 그에게 무한한 존경을 퍼다 바쳤을 것 같다.

우리들은 막연한 희망을 원하지 않는다. 손에 잡히기는커녕 시야에 보이지도 않는 희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누군가가 현재의 우리의 입장에 같이 서 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강교민은 그러한 우리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정말 이상적인 선생님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 되어 함께 있어 주는 강

교민에게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따위의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강교민의 말을 들으며 웬지 지금은 힘들지라도 앞으로는 잘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말 손에 잡힐 것만 같은 희망이다. 이런 사람이 학교에 한 사람씩 있으면 학생들이 변하고, 학부모가 변하고, 선생님들이 변하고, 결국 나라까지 바뀔 것만 같다.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강교민에게서 희망을 본 아이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상위층의 공부 잘하는 아이와 그의 극성 어머니였다. 가난하지만 전교 1등만을 놓치지 않던 석우는 상위 계급의, '사교육의 메카'라는 대치동에서 선행을 모두 마치고, 내신을 잘 받으려 지방의 일반고로 전학을 온 박진호에게 1등 자리를 빼앗긴다. 더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하며 공부해오던 끝에 수업시간에 쓰러져 버린 석우에게 강교민은 여러 이야기를 해 주고, 석우 또한 강교민에게서 희망을 본다.

그 시간, 박진호는 대치동에서 여전히 학원 뽕뽕이를 들고 있고, 박진호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할 정도로 극성스럽다. 수많은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해 가며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리에 나온 교통경찰은 불법주차한 차들을 잡기는커녕, 그 차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만을 해 줄 뿐이다.

한국에 와서 대치동의 현실을 본 하버드 학생들은 한국 유학생들은 이러한 암기식 학습에 찌들어 있는데다 미국에 와서도 사교적

활동은 전혀 하지 않으니 결국 그들은 공부도 못하고, 회화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비싼 돈을 치바르며 일명 1타 강사들의 수업을 듣고, 극성 어머니들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멍청이들로 철저히 전략해 갈 뿐이다. 그것을 그저 그 아이 본인과 그 아이의 부모만이 모른다.

강교민, 임기범, 이재균, 이소정과 같은 선생님들은 분명 이 사회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소수이고, 여전히 다수는 멍청하다. 소수들이 현실을 바꾸는 경우가 없진 않았지만,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은 그저 이상에서나 꿈꿀 수 있는 일에 불과하다. 이 소설의 마지막을 박진호의 이야기, 대치동의 현실로 꾸민 이유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실은 이것에 불과하다는 확인 사살이지 않을까.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현실은 이러하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은 현실과는 무척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 그것이 현실의 모습이 결말로 장식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 동주를 만나다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김 나 림

【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 ■ ■

심사평 : 독후감으로 풀어 쓰기 어려운 시집을 선정한 점이 의미있음. 시의 각 구절을 작가의 삶이나 다른 작품들과 연계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이 매우 뛰어나며, 시공을 초월하여 작품을 통해 작가와 내면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매우 잘 표현됨.



윤동주, 내게는 이 이름이 가슴 한편을 저리게 한다. 내가 처음 동주를 만났을 때는 고등학교에 입학해 기숙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다. 모의고사를 풀다가 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읽게 되었다. 당시 기숙사 생활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던 나는 이 시로 위로를 받았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며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서 동주의 쓸쓸함과 답답함이 느껴졌다.

낮선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동주의 공간, 육첩방이 마치 내겐  
 기숙사 책상 같았다. 힘들 때마다 두꺼운 모의고사에 꼬깃꼬깃 접  
 어놓은 페이지를 펴보면 어느새 나는 동주와 함께 육첩방(책상)에  
 앉아있었다. 그 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책을 샀다. 이  
 책의 특징은 1955년 발간 당시의 디자인이어서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책과는 달리 반대로 읽어야 한다. 처음에 반대로 읽을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했지만 계속 읽다 보니 뒤로 읽는 것이 옛 분  
 위기를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시 중간중간의 시어가 한  
 자인 부분이 있어 읽을 때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도 있다. 오히려  
 한자가 있어 뜻을 더 파악하기 쉬운 것 같았다. 현재와는 맞춤법이  
 다른 글자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소리 내 읽어야 그 뜻을 알 수 있  
 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동주의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뿐만 아  
 니라 다른 시들도 각각의 매력이 있다. 시를 읽기 전에는 알 수 없  
 던 또 다른 동주를 만날 수 있었다.

누구나 제목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 본 적 있는 [별 헤는 밤]. 동주  
 는 1941년 11월 5일 이 시를 썼다. 동주가 본 11월 5일의 하늘은 어  
 떤 모습이었을까? 무슨 별을 보았기에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리  
 운 것들의 이름을 그토록 불러봤을까? 자필본에서 동주는 시의 끝  
 부분인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  
 닭입니다.' 뒤에 날짜를 쓰고 시를 끝냈다. 하지만 날짜 뒤에 '그러  
 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중략)··자랑처럼 풀이 무성  
 할 게외다.'를 덧붙였다. 항상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동주지만 날짜

뒤 덧붙인 '자신의 별에도 봄이 올' 것이라는 말과 '자신의 이름이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이라는 말은 언젠가 자신에게도 봄이 오기를 바란 마음인 것 같다. 마지막 4줄에서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동주의 손글씨가 담겨있는 자필본이 아닌 딱딱한 글자로 옮겨진 시에서는 알아채지 못했을 부분이다.

동주의 시에는 '순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다. [눈오는 지도], [소년], [사랑의 전당] 등에서 등장하는데 아마 좋아하는 소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찾아보니 여동생의 친구였다고 한다. [사랑의 전당]에서 본 동주는 자신도 모르게 순이를 마음에 품었다. '사자같은 자신의 머리를 고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암시습 같은 순이의 수정 눈을 내려감으라'고 했다. 그러나 둘 모두 자신들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그들의 사랑은 한낱 병어리' 었다.

둘에게 시련과 고통이 오기 전 동주는 순이에게 모든 것을 두고 (안전한 곳으로) 떠나라고 했고, 동주 자신은 사랑했던 기억까지 모두 가지고 (거친 곳으로) 떠났다. 결국 그리움과 미련은 모두 동주 자신만 갖고 갈 테니 순이는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하라는 것 같다. 동주는 미련한 사람이다. 차라리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면 이렇게 그러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순이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감상하게 된 [바람이 불어]. 동주는 이 시에서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눈오는 지도]에서 순이가 떠나는 것을 분명히 안타까워했는데 무엇이 사실일까. 사실이든 아니든 확실한 것은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라는 부분 때문에 다른 시간으로 이 시를 감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윤동주. 순이를 사랑했던 윤동주.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윤동주. 이를 보면 [바람이 불어]는 무언가 반대로 묘사되어 있다. 아마 일본의 감시를 피해 일부로 반대로 시를 써 의미를 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동주가 순이를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순이 덕분에 동주의 미련한 모습,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습,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순이가 부럽다. 동주가 그녀가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녀를 그리워했으니.

가장 예쁜 시라고 생각되는 시는 [소년]이다.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와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라는 표현은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표현이다. 그림이 없어도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과 낙엽이 지는 쓸쓸한 가을 풍경이 내 머릿속에 그려진다. 동주는 슬픈 가을에 낙엽이 지는 나무 밑에서 파란 하늘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동주는 여리고 섬세한 사람임이 느껴진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읽다 보면 나와 동주는 어느새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펼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새로운 동주를 느낄 수 있다. 동주를 만나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나는 이 책을 펼친다. 시를 읽는 동안 내 머릿속은 동주와 그의 시로 가득 채워진다.



# 에밀

## 《에밀》

김 학 수

【이천고등학교 2학년】



**심사평 :** 고전을 통해 현대의 교육문제를 매우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잘 파헤친 글임. 또한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하는 수동적 시각을 뛰어넘어 작가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독서 내면화의 태도가 엿보임.



내가 이번에 읽은 책은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이다. 나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교육에 관련된 책을 찾고 있었는데, 내가 찾던 책 중이 책은 특이하게 한 인간의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아니라 한 아이가 어려서부터 교사로부터 자립할 때까지의 교육을 보여주는 것이 내 흥미를 끌어 이 책

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총론 및 출생기, 어린이기, 소년기, 제2의 탄생기, 결혼기라는 크게 다섯 가지 차례로 구분되어 있는데, 나는 이 다섯 차례들에 대해 내가 느낀 것들을 말해 보려고 한다.

내가 먼저 말할 것은 총론이다. 총론에서 루소는 자연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자연인이란 인간의 가치를 알기 위해 인간이 성숙하는 과정을 더듬어 보고 인간성향의 발전과정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이것을 보고, 루소가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육은 사람을 단기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그가 어떻게 발전하고, 그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를 알아보면서 그의 가치를 이끌어 내는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총론에서 진정한 교육은 교훈을 주는 것보다 실천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자연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선 경험을 시켜줌으로써 교육 받는 사람을 발달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인지를 알았다.

이번에 말할 것은 출생기인데, 출생기에서 내가 감명 깊었던 것은 ‘가정교사는 이미 형성된 인공적인 씨앗을 키우면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닌 다른 것들만 가르친다.’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 루소는 ‘아이는 분별력 없는 지식을 갖고 노예와 폭군이 되어 허약한 심신으로 무능과 오만과 악덕만을 가진 채 사회에 던져진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이가 인공적인 씨앗으로 키워지면서 노예, 폭군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요즘 통계에서 학생들의 장래희망의 대부분이 공무원이고, 대학 진학률 80%이며, 고학력, 고소득만 강요하는 게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루소가 말하는 이러한 인공적이고, 행복의 길이 아닌 교육이 문제 있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의 진로와 행복을 위해 새로운 교육방법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올해부터 시작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만족한다.

자유학기제란 토론·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 교육을 받는 제도로 이 교육방침이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학생들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아기의 최초의 울음은 요청이고,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울음이 명령으로 바뀐다는 게 감명 깊었다. 여기서 아이가 요청을 할 때는 도와줘야 되지만 명령을 할 때는 지배의 개념이 싹틀 수 있어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봤을 때 오냐오냐 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 가정에서 아이가 부모를 하인처럼 막 대하는 영상을 본적이 있어 이 내용이 감명 깊고,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출생기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루소가 아이를 따뜻한 기후에서 기르고, 부자여야 되고, 시골에서 길러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루소는 따뜻한 기후에서만 아이가 자신이 지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교육이 필요 없어 부자여야 되고, 인간은 밀집하여 살면 타락

하기 쉬우며, 허약한 육체와 부도덕한 정신은 집단생활이 빚어내는 것이어서 농촌에서 아이를 길러야 된다고 나오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가난한 것은 교육을 강요받아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극지방은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가? 둘 다 생활이 힘든 공간이므로 둘 다 교육을 강요받아 인간으로서 능력을 부자이거나, 따뜻한 기후보다 충분히 발휘시키기 좋은 공간이 아닌가? 또한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여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한데, 꼭 시골에서 교육 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농촌에서 지내는 것이 건강에는 도시보다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촌향도 현상이 심각한 지금 그곳에서 지내면서 리더십을 기르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비록 이 책이 지금보다 과거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이 농촌교육은 요즘 같은 시대상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에 말할 것은 어린이기이다. 여기서 루소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잔인한 교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 잔인한 교육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어린이는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잔인한 교육이 요즘의 시대상과 잘 맞는 것 같아 감명 깊게 읽었다. 나는 여기서 나오는 잔인한 교육을 오늘날의 조기 교육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조기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미리 많은 것을 배워 놓을 수 있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아직 뇌가 미성숙하여 여러 감각 기관이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창의력

을 발달시킬 시기에 그렇게 아이를 억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있나'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감명 깊게 읽은 것 같다. 이 잔인한 교육에 대해 루소는 그 교육이 목적은 합리적일지라도, 아이를 눈물과 징벌과 위협과 노예상태 속에서 보내게 하는 것이고, 이런 교육을 막기 위해 인간다워지기 위해 어린이의 놀이, 기쁨, 본능을 충족시켜주라고 말한다. 나는 이 부분을 통해 아이에게 조기 교육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이의 기쁨과 본능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교육이며, 놀이의 역할을 할 수 없어 하는 내내 집중조차 할 수 없고, 아이를 노예상태로 묶어두는 교육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이 어린이기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작가의 생각과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첫째는 아이의 초기 교육이 소극적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아이들이 정신기능이 정상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들이 정신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가? 내 생각에는 아이들이 사춘기의 변덕스러운 청년들보다 오히려 정신 기능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완벽하다곤 할 순 없겠지만, 내 생각에는 아이들이 주변 또래 아이들과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린이에게 우화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루소는 까마귀와 여우라는 우화를 들려주는데, 이 우화는 여우가 피를 써서 까마귀로부터 치즈

를 뺀 내용이다. 여기서 루소는 아이들이 우화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배워서 남의 결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여기서 루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우화의 모든 한 줄 한 줄을 반박하는데, 어느 어린이가 우화의 한 줄 한 줄에 대해 생각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어린이가 우화를 통해 즐거움을 배우고, 어른이 교훈을 설명해 준 뒤 훗날 이것을 의식적으로 잊어버릴지라도, 무의식적 기억하고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야기 할 것은 소년기이다. 소년기는 약 13세 정도로 능력의 발달이 욕망의 발달을 앞지르는 시기라고 나온다. 여기서 루소는 이 시기가 근면하고 면학하고 연구해야 되는 시기라 말한다. 하지만 순수한 이론적 지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것은 무엇에 쓸모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성가신 질문을 그치게 하라고 말한다. 물론 이 질문은 교육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질문하는 방식은 어린이가 답을 끄집어내게 하는 데 있어 능동적인 교육을 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의 질문을 그치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호기심이 왕성하여 무엇이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 그것을 막는 게 과연 옳은 일인 걸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아이가 쓸 데 없는 것을 질문할지라도, 그것을 이해시켜 주는 게 참된 교사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차례는 제2의 탄생기이다. 이때는 2차 성징 시기를 말한

다. 여기서 루소는 도덕적이고, 감정교육을 강조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기심을 다른 사람에게 펼치자는 게 감명 깊었다. 여기서 루소는 다른 사람에게 이기심을 펼치면 그게 미덕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도 나만을 위한 감정인 이기심이 다른 사람을 위한 감정으로 바뀌면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이 감명 깊었고,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더 감명 깊었던 것 같다.

마지막 차례는 결혼기이다. 솔직히 나는 이 차례 자체에 반론을 두고 싶다. 비록 이 책이 만들어진 시기가 지금과 다르긴 하지만 이 차례는 너무 가부장적인 질서를 강요한다. 요즘 같이 남녀의 역할이 불분명해지고, 양성평등이 된 사회에는 맞지 않는 차례란 생각이 든다. 내 생각에는 남녀에 차이를 두는 것보단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나가면서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읽을 사람이 딱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은 교육에 관한 책이지만 사람이 교사를 필요로하지 않는 전 시기를 담고 있어, 누가 읽어도 좋은 책인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매우 심오하고, 철학적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이 책이 교육의 표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지침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나는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겐 이 책을 추천하고 싶진 않다.


 동상

# 당신은 '이방인'입니까?

## 《이방인》

이 유 리

【양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 ■ ■

**심사평** : 주인공의 삶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잘 드러냄. 독서를 통한 경험의 확장과 이를 우리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사고 수준이 매우 뛰어남.



한 작가가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글을 본 후, 망설임 없는 손놀림으로 이 책을 집어 들었을 때 나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책을 넘겼고,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내 얼굴에서는 점점 웃음기가 사라져갔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맞을 듯싶다. 감히 말하자면 여태까지 내가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도 괴상하고 미묘

하고 심히 철학적이었다.

문학 작품을 포함해 모든 예술적 작품에서 '인물'을 가장 중요시하는 나에게, 평범한 직장인 주인공 '뫼르소'는 특별했다. 나를 압도한 첫 세 문장은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가 온 것이다."였다. 내용에 걸맞지 않은 담담한 어투가 소설의 독특한 시작점으로 나를 서서히 이끌었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한 '뫼르소'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모셨던 양로원으로 간 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보려 하지 않고, 시신을 둔 관 앞에서 밀크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 양로원으로 가는 버스에서부터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 '뫼르소'의 그 어떤 특별한 감정도 느낄 수 없다. 슬픔, 괴로움, 안타까움 등의 평범한 사람이 표현하는 일반적인 감정 대신 담담하고 무심한 생각과 허공을 가르는 그의 말만이 내용을 가득 채운다. 심지어는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과 만나 희극 영화를 보고 육체적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또한, 같은 층에 사는 이웃과 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는 등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게 된다.

이 '뫼르소'의 행동은 이어지는 사건의 복선이 된다. '뫼르소'는 친구인 '레이몽', 여자친구 '마리'와 함께 '레이몽'의 친구 '마송'의 별장에 해수욕을 즐기러 놀러 가는데, 이곳에서 시비가 붙었던 아

랍인을 총으로 쏘 죽이게 된다. 이 사건 후로는 '뫼르소'의 재판 과정이 펼쳐지고, 그는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그가 어머니의 장례식 때 보였던 무심한 태도였다.

검사는 교도소에서의 진술과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뫼르소'의 살인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충분히 반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배심원들을 설득했고, 그들은 결국 '뫼르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사가 말한 그의 진술과 행동은 '그의 진실'이었다. '뫼르소'는 포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의 말은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행동과 그가 보였던 태도는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관습에 따르자면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장례 행렬 내내 슬픔에 잠겨 있어야 했다. 관습에 맞지 않았던 그의 행동은 관습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생각 범주 내에서 용납되지 않았고, 그가 외치는 진실한 말은 관습의 굴레에 묻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무관심했다. 세상의 일에도 자기 일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모든 일에 무관심했다. 그렇지만 증오나 혐오의 감정도 일종의 애정과 관심이 변형된 감정인 것처럼, 오히려 그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뫼르소'가 말하는 '세계의 다정스러운 무관심'도 그

러한 의미의 개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만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피르소'가 어찌면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인물상이지 않을까.

그 진실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혹은 사회에게는 이해되지 않거나 용납될 수 없을지라도 그 자체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스스로만의 확고한 무언가라면 그 가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해진 기준에 맞춰 자신을 속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들에게 강요하기까지 하는 '우리'보다는 죽음 앞에서도 신념을 지켜나간 '피르소'가 훌륭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비극적인 운명을 선택한 그의 모습을 통해 그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근본적으로 나는 그를 '이방인' 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과연 그는 정말 우리와 '다른', '낯선' 이방인이었을까? 사실 나는 어머니의 장례 동안이나 그 후에 '피르소'가 보였던 행동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길고 긴 마음의 준비과정을 거쳐 어떤 일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그러한 일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것이라 믿는다.

어찌면 그가 누구보다 오래도록 품어왔을지도 모르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의 깊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의 시간 중 극히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그에게 관습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었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 역시 그 사회

의 '이방인'으로 평가될 것이다. 물론 '살인'이라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구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기나 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거의 태도에 대한 평가인 것은 아무리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이 흘러 조금 더 큰 사고와 넓은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이방인을 만난다면 '뫼르소'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방인'이라는 평가로 주위의 눈초리를 받는 사회가 아닌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제각각의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가 올 때, 수많은 '뫼르소'는 다시 일어나 그들의 신념을 지닌 채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나는 그들을 뒤에서 바라보며 묵묵히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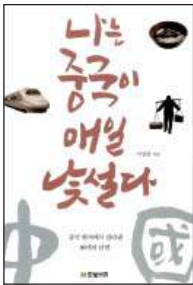
# 나는 중국이 매일 낯설다

## 《나는 중국이 매일 낯설다》

선 예 진

【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 ■ ■



시끄럽다. 무례하다. 촌스럽다. '중국' 하면 흔히 떠올리는 생각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중국에 관심을 두고 탐구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작 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중국은 당연히 그러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번은 부모님께 중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다. "중국은 시끄럽고 무질서해. 공기가 깨끗하지도 않고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일본을 가는 건 어때?" 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셨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중국의 문화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나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오해나 편견은 아닐지, 그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말 새로웠다. 저자는 비록 한국인이지만, 중국의 부족한 시민의

식, 무질서함과 같은 현상 속에서 이면의 당위성을 생각해 보고, 어쩌면 우리의 편견일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중국인은 왜 더럽고, 시끄럽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을까? 평소 같았으면 궁금증을 갖지도 않았을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으니 시끄럽게 들릴 것이다.' 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시민의식의 성장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을 것이다.' 이다. 저자는 이 현상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저자의 답은 경쟁과 무관심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다. 외부에서는 이를 노동력, 자원, 국력으로 본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많은 인구는 그들 각자의 경쟁상대일 뿐이다. 자신이 밀어내지 않으면 밀리는 사회인 것이다. 배려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닥칠 피해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배려가 개인의 이익과 맞물리는 상황이라면 나라도 개인의 이익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무례한 행위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너와 나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한 무관심이라는 약속이다. 최근 중국에서 남을 도와주다가 되레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남의 일에 무관심해지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무례함은 생활이 되어버렸다. 참 씩씩하고 냉정하다.

물론 위의 두 이유가 그들의 행위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확실히 달라졌다. 말로만

하는 이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할 힘이 생겼다. 요즘 '개 인주의'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중국의 무관심, 즉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는 중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부모 조차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고 교육을 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점점 남에게 무관심해지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위, 아래, 옆집에 사는 사람과 교류가 점점 줄어들다 못해 심지어 그들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남을 도와주기도 무섭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심리를 이용한 범죄도 있으니 말이다. 사실 나도 도와드려야 할 노인분들을 보면 '범죄'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 도움을 드리가 꺼려진다. 우리 사회가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삭막한 현실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인은 왜 그럴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이 책은 내가 중국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중국의 문화는 이해하지 않은 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로 현상만 보고 중국을 판단하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과 미숙함을 반성하게 되었다. 선부른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중국에 관심을 두고, 관련 책을 읽어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중국의 깊숙한 중심이 아닌 겉면이었고, 중국을 마주할 때의 내 태도 또한 깊은 연구가 아닌 수박 겉핥기식이었

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직접 중국을 느끼고, 그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때 진정으로 중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중국에서 직접 생활하며 중국의 여러 현상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보고 싶다.

또한, 앞으로 중국을 연구하면서 작가가 중국을 낯설다고 느꼈던 것처럼 나 또한 알지 못했던 부분, 새로운 사실 등 '낯설'과 마주칠 것이다. 그때마다 내가 이 책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느꼈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내가 되었으면 한다.

두려워하지 않고, 고정관념을 깨고 나올 나에게 중국은 과연 어떤 새로운 면을 보여줄까?



# 나는 질문하는 학생으로 살아왔는가?

## 《왜 학교는 질문을 가르치지 않는가》

조 은 서

【양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 책은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은 왜 저항하지 못하는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매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다. 연구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을 살피던 중 책의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서 고르게 되었고 그 내용도 연구의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왜 학교는 질문을 가르치지 않는가? 여기서 '질문'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우리 연구에서 질문은 곧 저항의 시작으로 '잘못된 힘이나 의견에 의심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판적으로 내 목소리를 세상에 내는

방법을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적어도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까?

나는 지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과연 지금까지 만난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내게 마음대로 질문할 기회를 주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것, 나를 낮추고 내 개성과 특이함을 없애고 그렇게 '보통'의 학생이 되게 만드는 교육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이 질문에 대해 내가 찾아낸 결론은 '그렇다에 가깝다.' 이다. 물론 내 결론은 매우 주관적일 것이며 무엇보다 학생에게 참 교육을 하려는, 실천적인 교육자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학생의 저항-의견제시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미성숙하고 권위적이라는 것이다. 위의 참된 교육자들이 자신의 교육을 펼칠 수 없을 정도로.

그랬다. 적어도 내가 받아왔던 교육은 미성숙했고, 소극적이었다. 학교는 -사회는 학생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하나 변화의 목소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 요즘 학생들은 개성을 잃어버렸다. 획일화된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이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개성과 반대의견이 없었을까? 아니란 이야기다.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도전으로 야기하는 혼란을 너무나 불편해한 나머지 학생에게 지나친 규율과 억압, '학생다움'을 강조하며 여러 빛깔로 재잘거리는 아이들을 무채색으로 만들

었다. 사회가 정해주는 하나의 목표에 맞게 오도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가떨어지는 학생들은 낙오자, 사회의 바깥고리하고 하며 남은 아이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며, 정해진 답을 얘기하면 '우등'하다, 네 옆친구보다 더 잘나야 한다. 이걸 배워라, 그건 아니다 라며 학생들을 '보편화'시키다가 갑자기 또 '창의력', '혁신정신', '도전'을 요구한다. 내 설명이 너무 편향적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매우매우 스트레스 받을 때의 우리는 이렇게 느낀다

이런 공간에서 '틀린 거 말고 정답을 말해' 라고 일평생 교육받아 온 아이들이 저항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쩌면 받아들이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나보다. 저항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의 '아니오'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결국 변화를 이룩하는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에게, 선생님의 훈계로부터, 부모님의 잔소리부터, 인터넷과 매체의 언어로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성적주의, 실업, 대학 입시, 삶'이 얼마나 바꿀 수 없고 폭력적인 억압일 것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었는지 말이다

질문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저 말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폭력인지 깨닫게 되었다. 책 속에는 작가가 교사로서 느껴온 부조리가 있는데, 그 중 비행청소년의 얘기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비행 청소년이라는 것은 누가 규정하는지, 단지 당신들이 정한 '사회규범'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노력하지 않고 성적은 형편 없으며 무례하고 때로는 '폭력과 범법'을 일삼았기 때문에 '사회 낙

오자, 외면해야 할 것, 어른들은 마구 폭언을 하며 훈계를 해도 괜  
찮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학교폭력, 살인, 절도 등을 무조  
건 감싸줘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도대체 왜 '엇나간다'는 것이 '사  
회적 무관심, 낙오'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나도 지금까  
지 '모범'에 어긋나는 애들을 싫어했고, 내 세상에서 제거했는데 정  
말 많은 반성을 했다. 사회로부터의 '무관심'이 누군가에게 지극히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겼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의 '기준'은 더 높아진다. 엇나가는 불량학생  
부터 공부 안하는 애, 못하는 애, 스펙 없고 가방끈 딸리는 사람, 능  
력이 부족한 인턴까지 '낙오자'로 만든다. 고등학교가 그렇다. '공  
부 못하는 학생'은 스트레스를 주고 폭언을 하고 혼내켜서 성적을  
올리면 그 '사랑의 매'가 다 용서되는가? 정말 무서운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사회의 '낙오자 기준'은 누구에게나 들이닥칠 수 있다. 그  
멋대로 정한 기준 아래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  
리는 그 기준-불합리는 없애야 하고 그것은 오로지 저항할 때 바꿀  
수 있으며, 결국 저항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의 질문이 시작  
되어야 한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마치 내가 줄곧 껴왔던 무거운 안경 하나가  
벗겨진 것처럼, 지금까지 의문을 가져왔던 사회 부조리들의 실상  
이 매우 또렷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외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내 언어로 세상에 질문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이며 숨죽이고 있는 사회의 변두리에게 더 다가가  
함께 싸울 것이고 내 자리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기위한 노력을 서  
슴지 않고 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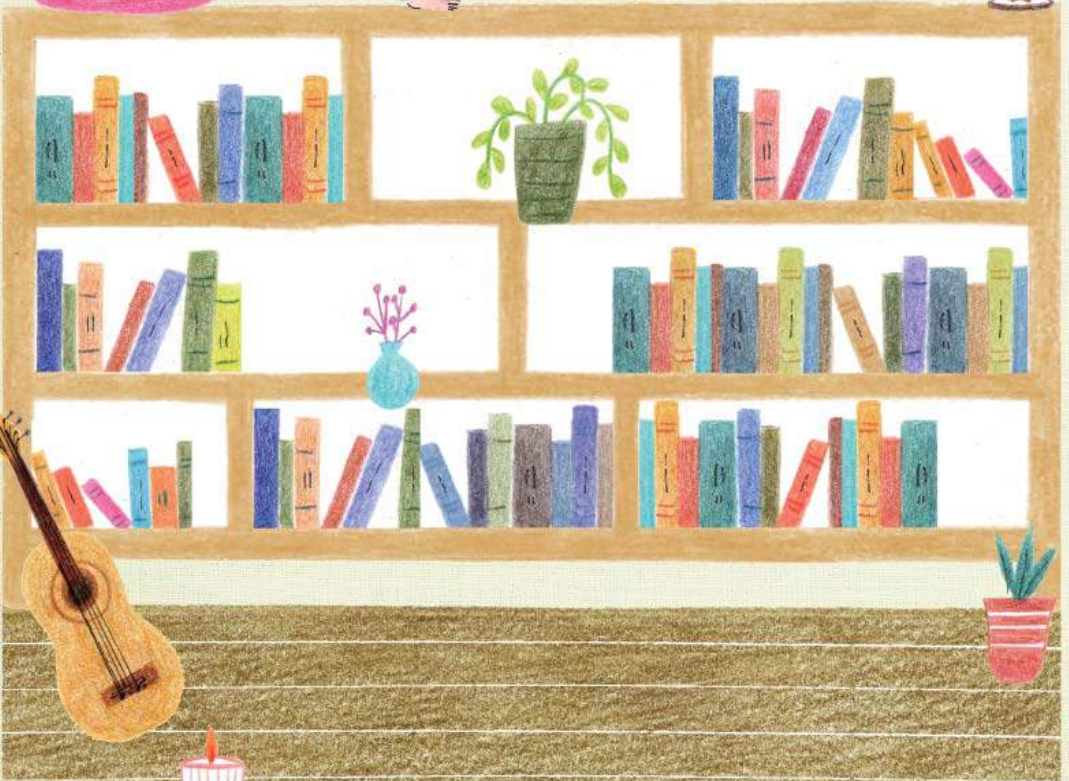


## 2017 독서감상문 공모 수상작

### 일반부



- | 우성웅 | 대 상 /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
- | 조양수 | 금 상 / 최고의 공부
- | 최옥경 | 은 상 / 오베라는 남자
- | 김창덕 | 동 상 / 옥상에서 10분만
- | 이상은 | 장려상 / 여혐민국
- | 진보라 | 장려상 / 기억 전달자
- | 김덕순 | 장려상 / 조정래의 시선(視線)





# 아버지의 요인, the father f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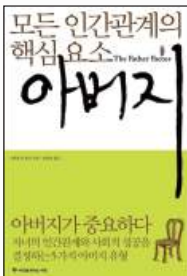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

우 성 웅

【이천시 중리동】



**심사평 :**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다각도로 성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경험과 치유 과정을 매우 진솔하게 잘 풀어냄. 책과 자신의 삶을 매우 밀접하게 연관 지어 내면화하였고,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된 과정이 담담한 문장으로 매우 잘 표현됨.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그 동안 쌓여있던 나와 아버지에 관계에 대한 의문들을 조금이나마 전문가가 말하는 방식으로써 이해해보고자 함이었다. 어린시절, 언젠가부터 조금씩 쌓여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미움, 그리고 내 삶의 곳곳

에서 드러나는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라는 존재.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 큰 의문의 웅덩이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나는 그저 그 웅덩이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싫어 외면하고 있었던 걸까?

이제 나는 진정 알고 싶다. 그리고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그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그리고 나는 왜 그와 나를 연관시키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을 물려받게 된 내가, 나의 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어쩌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을렀던 나에게 대한 반성이, 이 책을 읽도록 했는지도 모르겠다. 내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된 나, 나의 아들에게 못 다한, 그리고 해줘야만 하는 말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의 첫 장을 펼쳤다.

엄격히 말하자면 이 책은, 아버지 요인(the father factor)이라는 것이 자식의 삶, 특히 직장의 선택과 직업윤리, 직장에서의 생활과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자식의 삶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통설이지만, 적어도 자식의 직업관이나 직업의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영향이 더 크다고 얘기한다. 이 부분은 나도 매우 동감이 되었다. 비록 현대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남성들의 그것에 비할 바가 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

책은 나 정도의 세대, 즉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고,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만 전념하던 부모의 자식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느껴졌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자식의 직장에서의 인관관계와 사회적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역으로 추적해봄으로써 자아의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이 책의 핵심은 과거에 아버지가 나에게 (정서적으로) 해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원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바꾸고자 함이다. 그리고 자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오래 된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날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날이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 비로소 나는 어른이 되는 꿈을 꾸다.

이 책에서는 첫 번째로,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애착(attachment)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애착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다. 잠시 나열해 보자면, '간헐적 애착, 회피 애착, 우울 애착, 안정적인 애착'이 그것이다. 즉,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사회나 직장에서 타인들과의 인관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간헐적 애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애착관계가 지속적이지 않는 것이다.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보여주는 반응이 다르다면(특히 아이가 부모의 정서적인 공감을 필요로 할 때) 이러한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내가 이해하기에는 이 애착관

계를 가지는 아버지는 변덕쟁이 아버지, 또는 기분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아이에게 전달되는 정서적 피드백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아이는 사회를 안정적이지 않은 불안한 장소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발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현실 안주에 집착할 수 있다. 아버지도 하나의 인간인데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좋은 아버지가 되는 일은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정서적으로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나도 아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만 같아 씩씩한 마음이 들었다.

회피 애착이란, 아버지가 자식과의 정서적 교류를 피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과묵한 아버지, 우리 세대가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홀로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애착관계의 전형이다. 이런 애착관계에서는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사회나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을 회피하게 되며, 그 결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지속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

우울 애착이란, 아버지가 우울함(반드시 병리적 우울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기력하거나 활기가 없을 때)을 느낄 때, 자식이 그것을 보고 형성되는 애착방식이다. 보통 이 유형의 아버지들은 자신 또한 무기력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무관심하게 된다. 따라서 자식들

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느끼며, 문제 행동을 하거나, 단절된 생활방식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세가지 애착관계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반영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지속적으로 일관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정서적 교류를 회피하며, 자식들에게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아버지와의 애착은 불완전한 것이며, 이는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다. 사실 어떤 유형에 꼭 아버지가 속해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의 아버지의 경우 이 부정적인 세 가지 애착방식을 적절히(?) 섞어놓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러면 내가 나의 아들과 만들어가야 할 애착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네 번째, 안정적 애착관계이다.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아버지들은 자식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며, 이해한다. 그리고 일관성있게 그것들을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성장한 아이들은 자존감을 가지며,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부정적인 일들과 마주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운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책을 읽지 않았을 경우 되어있을 미래의 나를 포함한,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 나온 말을 인용하자면, 이 세상은 교육받은 직무유기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에는 아버지 유형을 5가지로 분류했다. 성과에만 집착하는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본인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언제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형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정서적 불안함 속에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며 의심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의 표본인 수동형 아버지에게는 소극적인 인간관계를 배우고 정서적 유대감을 배우기 어렵다. 자녀들과 떨어지거나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부재형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정서적 상실감을 가질 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내가 나의 아들의 눈에 비춰져야 하는 바람직한 나의 모습은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의 모습이다. 자녀를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 하나하나에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긍심(self-esteem), 공감, 일관성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

내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 나는 과연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모든 아버지의 모습은 조그마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변형될 수 있다. 단지 나의 아버지는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었고(유복자였고),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보다 노동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들을 미처 알지 못한 것뿐이다. 우리의 아

버지들은 참으로 딱한 분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의 모습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들은 정서적으로 이미 피폐하고 파산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시대는 물론 그 누구도 그들에게 충분한 안식과 보상을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성공의 결정적 요인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며,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용서하고 그 요인들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는 자식의 삶의 원천이요, 삶의 지표이며, 자부심이라고 말한다. 나 또한 내 아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즘 TV프로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우리는 '어쩌다 보니' 아버지가 된다. 부모가 된다. 부모가 되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떨쳐내고,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자. 물론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거나 폭력과 폭언을 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어린 아이의 나에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내 삶에 조금 더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 시절 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라는 나만의 '베스트 프렌드'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정말 친구가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나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나의 아버지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노력을 해볼 참이다. 어렵겠지만, 우리 서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성인이 되어 나를 떠올릴 때,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아버지'라는 막연한 말을 구체적인 설명과 심리학적인 요소로 풀어 설명해준 이 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 최고의 공부

## 《최고의 공부》

조 양 수

【이천시 대월면】



**심사평 :** 책을 통해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글쓴이의 시각에서 잘 표현하였고, 특히 교육자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 놓았음. 책의 내용을 내면화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시각을 뛰어넘는 통찰력이 돋보임.



저자는 현행 제도권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점수와 학점으로 대표되는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외적 보상체계, 그리고 그로 인한 피교육자의 피상적이고 전략적인 학습태도의 내재화로 보았다. 물론 학생이 좋은 점수를 취득하고, 이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진리 탐구가 학문과 교육의 근원적인 목표라면 교육자와 피

교육자 모두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심층적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국 이런 학습법만이 궁극적으로 좋은 성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좋은 점수와 학점이 반드시 우수한 학생임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심도있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은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관리하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창조하며, 표면 아래 숨어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학습의 전체적인 맥락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학습자의 학습을 위한 태도에 대한 여러 조언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적인 요소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대적 환경과 가정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만난 스승 등의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학습자에게 강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대상자와의 개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독자의 이해와 변화를 구하고 있다.

본인은 책 속의 폴 베이커 교수의 강의를 '실제 우리나라 교육현장 속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 의문을 가지고 있다. 외적 보상체계와 성과주의적인 우리나라 학교교육 시스템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베이커 교수의 교수방법은 교육자 개개인의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생님 스스로도 학교교육 시스템의 성과주의와 외적 보상체계가 내

재화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러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선생님이 인지할지라도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된 교육방식을 이해할지도 의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폴 베이커 교수의 강의 방식은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철학과 맥락 그리고 교수법에 이르기까지 완벽히 선생님 스스로 내재화 내지는 체득되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수업방식이기 때문이다.

저자도 원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교육에 주요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본인도 이러한 수업방식은 대학교육에 적합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이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창의적이고 심층적인 학습은 개인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애주기별 학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적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선 선생님들은 교과 전문성을 키우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함께 진리 탐구라는 길을 나서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개인 학생의 특성과 관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도전과 실패에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학생 스스로 본인에게 자신감을 가진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결국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점에서 최고의 공부를 심층적인 학습법에서 찾을 수 있다면, 선생님은 많은 학생을 이러한 학습모델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제시하는 최고의 공부를 위한 여러 방법은 학생에게도 필요하지만, 결국 학습은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피드백이 바탕이므로 학생과 교사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학 이전의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임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암기 위주의 지식습득과 평가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 문/이과 통합 그리고 통합교과 등에 주안점을 둔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양화 되는 대학입학 전형은 심층적 학습을 하는 학생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선 선생님들도 학습에 대한 인식전환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고집불통 아저씨~~~ 그래도 오베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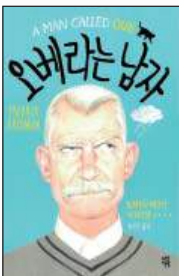
《오베라는 남자》

최 옥 경

【용인시 처인구】

■ ■ ■

심사평 :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삶을 연민어린 시선으로 잘 담아내었고, 이를 통해 한 인간에 대한 깊이있는 공감능력과 따뜻한 시선을 제 공함. 담담하고 진솔한 태도로 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잘 표현함.



고집불통, 소통이라고는 전혀 안 되는 앞 뒤 꼭 막힌 노인네. 안 된다 싶음 소리소리 지르고, 험상궂은 인상은 덤이요, 불친절하고 무섭기까지 한, 괜한 시비라도 붙을까 알아서 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오베라고 생각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 가까이도 있는 그런 아저씨 이야기인가 하면서 책장을 넘기는데, 오베는 자살

을 계획한 남자였다. 왜 살아가는걸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지 여  
전히 그는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동네 시찰을 하고, 불법 주차를  
찾아내 관할 시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통명스럽고 친절하지 않고,  
주변에서 좋아할 리 없지만 오베는 자기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  
하는 일을 매일 아침이면 하고 있는데, 그는 죽을 결심을 한 남자  
였다. 세상과 불통인 남자 오베는 아내를 잃었다. 그에게 전부였던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던 걸까.

오베는 평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다.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아  
버지마저 열여섯 살에 잃었다. 아버지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그대  
로 받은 오베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삶에 중점을 두고 살았  
다. 남은 건 작은 집과 아버지의 낡고 낡은 차뿐이었다. 결혼 후에  
는 임신한 아이를 사고로 잃고, 아내는 장애를 얻게 되고, 힘든 삶  
의 연속이지만, 타인의 잘못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어도 굳이 그걸  
해명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는 안타까움마저 들었다.

만약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너무 힘든 삶이 아니었을  
까. 그는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타인을 함부로 의심하지도 않  
았다. 그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도 나고, 보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을 가입해서 사기도 당하는 그런 남자 오베.

오베는 타인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도 않지만 어느새 유해한 사람  
이 돼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오베의 집터는 시와 시의 경계에 있는  
데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쪽에서의 오베네 집은 철거대상이다. 도  
시경관도 망치고 있고, 위험인물로까지 치부되는 이상한 계산법이

우리네가 사는 일상이지 싶은 생각이 드니 씁쓸함도 든다. 오베는 아버지 집을 지키고 싶다. 오베에게 아버지는 무엇이었을까.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구식이 되어 버린 곳이었다"*

이 글 처럼.. 오베는 세상에 적응이 힘든 사람이다. 급변하는 모든 것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오베가 강압적이고 고집스럽다고 표현되는 면도 있을게다. 컴퓨터면 컴퓨터지 키보드가 없는 패드가 뭘 컴퓨터냐..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을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알려고 하지 않는 점에서 소통이 힘들었다고 생각된다. 상대 또한 친절히 그걸 알려주기에 오베는 거부감이 드는 남자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인복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그는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그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들. 투박한 모습 속에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빛난다는 사실을.

그는 그가 뜻한대로 세상을 살지는 못했다. 남자답게 사는 걸 좋아했던 그였지만 심장이상 문제로 그는 군인이 될 수 없었다. 만약에 심장이 이상이 있지 않았다면 그가 정직하고 멋진 군인이 됐으리란 건 충분한 상상이 된다. 남자다운걸 좋아했던 오베니까.

그는 그런 회색빛 세상을 살고 있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난 좌절이나 절망 속에서 삶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이 있는 듯 그렇게 살던 그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색

이 있다는 걸 알려준 여자. 소냐를 만났다. 소냐는 오베에게 목적과도 같았다. 삶의 목적. 그래서였을지도 모르겠다.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없어졌으므로 더 이상의 삶에 의미를 두지 못하는 것도 당연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주변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했다. 그런 그에게 이웃은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 이웃들로 인해 오베의 죽음은 자꾸 뒤로 밀리고 만다. 운전미숙으로 오베의 화단과 우체통을 박살내고, 수시로 문을 두드리며 오베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는 파르바네 가족. 통통거리는 오베를 웃긴다며 깔깔 웃는 파르바네의 3살배기 딸. 오랜 이웃집의 라디오테이기는 왜 자꾸 말썽이고, 사다리타고 높은 창을 열다가 추락해서 다치고 만 파르바네의 남편으로 인해 파르바네의 가족들을 태우고 병원을 다녀야 하는 오베. 운전면허가 없는 파르바네에게 운전을 가르치고, 자전거를 고치려는 젊은 남자애들 이야기에다 이제는 귀를 기울이게 된 오베.

오베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졌다. 소냐에게 가야하는 데, 지금의 일이 너무 바빠져서 소냐의 무덤에서 이야기 한다.

*"낮에 뭔가 할 일이 계속 있으니까 가끔 꽤 괜찮긴 해"*

그는 세상의 끝이 소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더 이상 자신의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고, 찾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웃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귀찮아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죽은 소냐가 원하고 즐거울 거란 생각으로 했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본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오베는 배웠던 거 같다. 처음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소냐로부터, 나중에 오베의 이웃으로 부터.


 동상

# 돌아보니 왕따였네!

## 《옥상에서 10분만》

김 창 덕

【이천시 부발읍】

■ ■ ■

**심사평 :**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나아가 이 책을 통해 교육자로서 소외된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글쓴이의 통찰이 돋보임. 진솔하고 따뜻한 태도로 잘 표현함.



올해부터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일주일에 한 시간 독서하며 일기쓰기'가 점차 생활화되면서 학생들이 읽는 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자 수나 평균 대출량이 점점 늘고 있다. 매시간 독서일기를 확인하면서 어느 학생의 일기 속에서 발견한 '옥상에서 10분만'이라는 책은 단 여섯 줄의 감상만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학생은 초등학교 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고 즐겁게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옥상에서 10분만'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읽어보았더니, 괜찮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었다.

'옥상에서 10분만'은 '멘토 보고서', '옥상에서 10분만', '붉은 주먹',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우산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섯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조규미 작가의 청소년 단편소설집이다. 멘토링을 소재로 서로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시작하는 우정, 이성교제에 서툰 중학생들이 '키스' 때문에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겪는 갈등, 돈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날리는 씩씩한 주먹, 학교폭력 방관자이자 가해자인 학생의 내적 갈등과 용기, 여학생들의 왕따와 관련된 교우관계 뒤틀림 현상까지. 작가는 학교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법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갈등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잘 묘사하였다. 학생들이 주인공이라 결말을 열어놓은 것인지, 독자들이 뒷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지 읽으면서 저절로 요즘 학교가 궁금해지고 과거 학창 시절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논 사람 다 일어서!"

하나, 둘, 셋,.... 아이들이 일어서기 시작하였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일어나니 결국 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 나는 어찌다 학급문고에 꽂혀있던 설록 홈즈 시리즈에 중독되어 교실에 남아 책을 읽었을 뿐인데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 놀지 않고 공부한 '유일한 모범생'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혼자가 되었다. 없던 말수는

더욱 줄었고, 표정은 어두웠다. 설록 홈즈 시리즈를 다 읽고 학급 문고에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도 그곳이 나의 자리였다. 그 시절의 나는 요즘말로 왕따였다. 5학년을 지나 6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혼자였다. 그렇게 혼자인 것이 편한 아이가 되었다.

친구들을 닮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괴롭히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었다. 그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이 많은 초등학교 시절이었지만, 결국에는 어둡고 불행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한 친구를 따돌렸던 기억은 동창생들에게도 아픔을 남겼다. 그들은 십 여 년이 지난 후에 동창회에서 술 한 잔에 기대어 용서를 빌었다. 덕분에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는 있었지만, 아직도 나는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

교사가 되어 한 해 두 해 지내면서 외모나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열이면 열, 서른이면 서른이 모두 다르다. 책, 축구공, 연필, 피아노, 붓, 자전거 등 좋아하는 것이 저마다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다.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책을 읽든 운동장에 나가 뛰어놀든 다 좋다. 5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서는 마냥 해맑게 뛰어놀고만 있는 제자들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고 싶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교사의 말 한마디가 책을 좋아하던 한 아이를 왕따로 만들었다. 선생님은 모르셨을 것이다. 그 아이는 원래 교실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으니 계속 책만 읽고 있는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외로웠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고, 즐겁게 뛰어놀며 웃고 싶었다.

학교에서 혼자 노는 아이들을 볼 때면 그 때의 내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말을 걸고, 물어 볼 때가 있다. 정말 혼자 있고 싶은 건지, 어쩔 수 없이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건지 알아본다. 혼밥족 시대, 우리 학교 급식실에도 혼밥족을 위한 일인 식탁을 마련한다고 한다. 혼자 식사하고 싶은 이를 위한 자리, 과연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앉아봐야겠다. 다른 이들이 친구끼리, 동료끼리 먹을 때, 혼자 밥을 먹으면 어떤 기분일까?

돌아보니 왕따가 되어 있었던 초등학교 시절, 그때부터 깊어진 외로움에 지금까지도 서운함을 담고 있었던 내 가슴 한 구석을 비우고, 이제는 고마움을 가득 담아 그리운 선생님을 불러본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여혐민국을 읽고

## 《여혐민국》

이 상 온

【이천시 대월면】

■ ■ ■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나의 친정 형제들이 2, 3개월마다 모여서 하는 독서토론에서 읽기로 선정한 책이기 때문이다. 막내 남동생이 추천하기에, 모두 한 번 읽어보자고 했다. 그즈음 대학생인 그의 딸(나에게는 조카)이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페미니즘에 몰입돼 있단다. 그래서 과연 어떤 책인지, 과연 페미니즘이 뭘지 알고 싶어, 읽어 보기로 한 것이다.

이 책은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남성들,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섬세하게 해부해서 보여 준다. 이 책에서 저자가 '여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성을 차별하고 낮추어 보고, 멸시하고 성적으로 대상

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널리 퍼져 있기에 그러한 현실을 강조하는 뜻에서, 책 제목을 '여혐민국'이라고 붙인 것 같다.

다소 거칠게 표현한 부분은 있었지만, 나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여혐을 돌아보며 가슴 절절하게 공감한 부분이 많았다. 재미있는 표현(앉아서 오줌 누는 남편에게는 청와대에서 표창장을…)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개인의 역사, 특히 결혼과 육아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아, 그런 거였구나!'하고 확실하게 감이 잡히면서, 할 말을 대신해 주니 쌓였던 원한(?)이 풀리는 듯,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도 맛보았다.

저자는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야말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당위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 왔고, 현재의 환경도 대체로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여자로만 보는, 말하자면 여혐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그러한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혁명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모의 관점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성의 여혐이 더욱 슬프다고 지적했는데, 나도 여성의 여혐이 더 가슴 아프고 슬프다. 다만 저자는 여성의 착각,

합리화 - 가령 결혼생활이 불행해도 '그래도 우리 남편은 돈은 벌여 와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합리화 때문에 슬프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여성의 여혐이 더욱 슬픈 것은 근본적으로, 여혐하는 여성이 같은 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존중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저 여성으로만 보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려 한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나는 여자 의사 안 믿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 속엔 "여자 의사는 실력이 없지. 여자가 실력이 있을 리 있나?"하고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마음이 들어 있다.

그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 주는데,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열등하게 본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니 다른 여성도 인간으로서 따뜻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여성으로서만 바라보고 열등한 점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 그것은, 자신은 의식하지 못해도 한 인간으로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기에 다른 인간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혐이 없는 사회,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각자 조금씩이라도 노력하자, 소리를 내자고 말한다. 모

두가 페미니스트 전사가 될 필요는 없고, 자기 자리에서 작은 것이  
 라도 묵인하지 말고, 충들을 피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소리를 내  
 면 된다고 말한다. "와, 그건 좀 아닌데."라는 한마디라도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사회 전체가 불편해하고 의식하면서 1mm씩 변화  
 도록 만들자고 한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넘어 가면, 즉 그러한 인식이 퍼져서 어떤 임계  
 점에 도달하면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차 여혐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장착되  
 어, 여혐이 사라진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을 인간으로  
 서 존중하는 사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사는 사회가  
 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교육  
 과 참정권 등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누리고 사는 것은, 이전에  
 소리를 내었던 사람들의 덕분이니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에도 전  
 적으로 동감이라는 것을 부연하고 싶다.

이 책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찾는다면, 여혐이 사라진 진정한  
 평등을 향한 각 개인의 작은 노력을 강조한다는 것, 그리하여 사회  
 전체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또한 내 개인적으로도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우선,  
 그동안 살면서 경험해 왔던 여혐들을 "아, 그런 거였구나."하고 새  
 로이 인식하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날카로운 현실 인식 하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행

보를 변화시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나는 그동안 충돌을 회피하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의 말대로 '방관충', 뒤로 숨는 사람이었다. 충돌하기 싫어서 부당해도 그저 참고, 그냥 넘어 갔다. 속으로 "사필귀정이야. 나중에 바르게 잡힐 거야, 밝혀질 거야."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이제는 용기 있게 소리 내는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 조금씩이라도 말하자! 소리 내자! 단,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의 행복을 위한 마음으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친구이자, 동료이고 동반자이므로! 그래서 여협이 사라진,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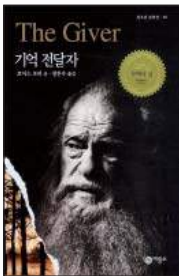
# 또 다른 데미안을 만나다

## 《기억 전달자》

진 보 라

【이천시 증포동】

■ ■ ■



영화를 먼저 본 뒤, 원작이 있다는 자막을 보고 찾아 읽은 소설. 사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느낀 것이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이 소설은 결국 '데미안'이다. '자신 안의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세상의 모든 규칙에 의심을 품고 세상의 진실에 직면한 뒤 스스로 그 억압을 깨고 새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모든 역할이나 행동의 규칙이 정해져 있고 모든 행동과 대화를 감시받는 모습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닮았다.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게 하려고 피부색도 같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없으며 심지어 개인의 감정조차 조절

되고 있는 세상. 지금 현재에 존재하지 않지만 다름이 없고 차별이 없어 평화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기초가족을 이루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해진 일정에 의해 살아간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도 '다름'은 있었다. 그것은 직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직업. 위원회에서 12살을 맞이하는 50명의 어린 시절을 잘 살피 12살 생일에 직위 받기 기념식에서 각자에게 맞는 직위를 부여한다.

주인공인 조너스 가족의 대화를 통해 유추해보건대 몇몇 직위는 천대받는 것이 분명했다. 세세한 규칙으로 정리되고 조정되는 세계에서조차 직업에 따른 차별이 남아있음은 아이러니했다. 모든 것을 동일하게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각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 그중에서 조너스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자신만의 생각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확장하고 있었다. 위원회가 그 점을 알아챘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 누군가의 일생을 살펴보고 그에게 직업을 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너스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직위를 받지 못했다. 대신 다음번 기억 보유자로 선출되었다. 세상의 기억을 사람들 대신 가지고 있는 자. 지능, 정직함, 용기라는 자질을 인정받았다. 조너스는 기억 전수자로서 세상의 기쁨, 행복, 사랑을 깨달았지만 세상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굶주림, 전쟁도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색깔'을 구별할 수 있

는 능력이 생겼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탁월했다. 한 가지밖에 없던 색깔이 다양해지는 것은, 주어진 규칙에 매여 있던 어린아이가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다. 기억을 전수받던 중 가장 직면하기 힘들었던 진실. '임무해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기억을 전수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가브리엘을 살리기 위하여 예정보다 일찍 탈출을 결심한다. 전달자에게 모든 기억을 받지 못한 채로. 그리고 새 세상을 맞이한다. 난생처음 '음악'을 들으며.

이 모습은 청소년들의 모습이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 어린이는 부모, 교사가 쥐어준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으나 시야가 넓어지면서 세상이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진실에 눈을 감고 동조할 것인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변혁을 준비할 것인가. 그 어떤 선택도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어떤 선택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조너스는 후자를 선택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의 예수가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부활절 주간에, 그리고 4.19혁명 기념일에 이 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니 느낌이 새롭다. 그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앞이 보이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희망은 있다. 또 그 길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너스도 마찬가지로 그 점을 알고도 탈출했다. 그의 자질 중 하나였던 '용기'를 최고로 발휘하여 새 세상의 희

망이 될지도 모르는 가브리엘을 데리고 탈출을 하였다. 물론 그 끝이 희망이었는지 새 세상이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마치 청소년들의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책은 현 시대의 '데미안'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꼭 읽었으면 하고 아마 그들이 읽으면 나보다 더 잘 이해하고 감동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조너스는 가브리엘을 살리는 것일까? 자신의 기억을 전달받을 수 있는 전수자이기 때문이었을까? 추측건대 그것은 사랑이었을 것이다. 아마 사랑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전달자에게 모든 기억을 전수받지 못한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상의 기억은 스스로 만들고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일까? 아니면 불완전함으로 세상에 직면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말한 것일까? 또 마지막에서야 등장하는 '음악'. 왜 음악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의미는 여전히 모르겠다.

세상에 순응하며 살게 된 나같은 어른에게도 좋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청소년에게 더욱 좋은 책. 그들은 나보다 더 잘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책의 한 부분을 쓰고 마칠까 한다.

*「지금 조너스는 굶어 죽어 가고 있었다. 계속 마을에 머물렀다면 아마도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명료한 잘못이었다. 떠나기를 선택한 것 말이다. 그 결과 지금 자신은 굶*

어 죽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면...'

조너스는 계속 생각했다.

만약 계속 마을에 머물렀다면 다른 것에 굶주렸을 것이다. 감정,  
색깔, 사랑 등에 굶주리며 평생 살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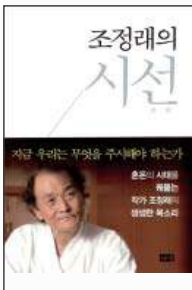
# 나의 잘남

## 《조정래의 시선》

김 덕 순

【이천시 신둔면】

■ ■ ■



나는 항상 자신감에 찢어있다. 참으로 위험하  
기 짝이 없는 자신감이다. 그저 조금 읽었다고.  
책과 늘 같이 공간을 공유한다고 자부하면서...

「눈덮인광야를가는이 / 아무쪼록 어지럽게  
걷지마라 / 오늘 그대가 남긴발자국이 / 뒤따라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서산대사의 시

이다. 이책에서 처음 알았다. 어찌 부끄럽지 않은가.

조정래 작가의 책은 태백산맥을 시작으로 아리랑, 한강, 정글만  
리, 풀꽃도 꽃이다를 읽어왔다. 視線은 또 어떤 소설인가 하고 책을  
펼쳐봤지만 조정래 작가의 사상이 담긴 대담 책이었다. 그는 어렸  
을 때 아버지 조종현-철운스님이 겪는 고초를 눈으로 보고 자랐다.

같은 민족이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져 죽고 죽이는 일.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국에게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일을 수없이 보고 자랐다.

이 책 속에서 지극히 공감미 되는 이야기가 여럿 있다. 하나를 소개하자면 내 남동생이 어느 날 눈이 빨개가지고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왔다. 울은 흔적이다. 사연을 물은즉 자기네 대학 동기가 40명인데 남자가 35명이란다. 그중 30명은 군대를 면제받고 5명만 영장이 나왔단다. 군면제를 받은 사람은 소위 신의 아들이고 영장나온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라 서러워서 붙들고 울었다. 돈 없고 뺨 없어서 군대를 가게되는 이들이 무슨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킬 것인가. 군대를 중요하고 제대를 하겠지.

조정래 작가의 이야기도 그렇다. 김영삼정부 때 부정부패를 없애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겠다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을 전부 징계하려했더니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전부징계를 받을 것 같아서 때려쳤다고 쓰여있다. 그 뒤로 정가는 어땠는가 이회창이 대통령되려고 대선에 나왔다가 군대 안 간 아들 때문에 민초가 등을 돌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을 읽을 때 나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어머니께 사실여부를 묻기까지 했다. 6.25 사변 때 정말로 낮에는 국방부편 밤에는 인민군편이 되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아슬아슬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며 한번은 아버지가 인민군 트럭에 실려서 집단총살을 받으러 가다가 트럭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목숨은 부

지했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서 나중에 다리에 변형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부모님의 이야기나 책에서 배운 이야기는 사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자세히 기록도 없고 부분 부분 서로 다른 이야기이고..

조정래 작가의 인생관에 나는 늘 동조한다. 나는 우리민족이 이렇게 갈라진 것에 대해 조정래 작가와 같은 생각이다. 정확한 역사 인식이야말로 우리의 나아갈 명제이다. 그러나 지금도 기득권세력은 불구가 된 민족의 육신을 버려두고 저만 잘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으며 민족보다는 자기의 영달만 생각한다. 북한의 김일성일가와 뭐가 다르단말인가. 김일성이 죽은 후에도 그 기득권 세력들은 권력을 놓지 못하고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왕조를 만들어 저들의 욕심을 끝없이 채우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조정래 작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본질적 병폐를 언급하고 있다. 조정래 작가의 소설 풀꽃도 꽃이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어느 연사가 자기의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데 온갖 부정한 짓을 다하고 다닌 자기를 선생님의 사랑으로 아니 혁신학교 교사의 사랑과 헌신으로 새 사람이 되게 했다는... 혁신학교라서 가능하게 했다는 성공담을 쓴 이야기이다. 조정래 작가는 우리의 교육이 줄세우기 교육이 되어서는 세계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내가 교직에 있을 때 혁신학교 정책을 몇 년간 시행했었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인성을 길러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운 교육이 혁신교육이다 이 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란 것도 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기도 한다. 앞으로 지식주입교육은 별 의미가 없다. 컴퓨터나 휴대폰만 있으면 모르는 지식은 언제나 검색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누가 더 얼마나 창의적이냐가 관건이 되었다. 창의적인 자만이 문화를 창조하며 지식덩어리인 컴퓨터나 휴대폰의 공격에서 자유롭게 이길 수 있으니 말이다

視線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정글만리 등 여러가지 책 속에 담겨진 조정래 작가의 생각과 사상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제발 의식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외침이다.



2017 독서감상문 공모 수상작

# 군인부

| 이수진 | 대 상 / 시네필 다이어리





# 처방전 : 초인이 되는 것

## 《시네필 다이어리》

이 수 진

【이천시 중리동】



**심사평 :** 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이 매우 유려한 문장으로 잘 표현되었으며 특히 글쓴이의 사상이나 철학이 뚜렷하게 잘 드러나는 글임. 책의 내용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철학과 접목하여 의미의 폭을 확장하려는 태도가 매우 바람직함.



유예된 사춘기를 지금에야 겪고 있는 듯하다. 대학입시와 취업준비로 쉴 틈 없이 달려왔던 나는 나의 자아와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쌓여진 긴 시간의 장벽 너머에 외롭게 토라져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슴 한 가운데에 뺨 뚫린 구멍으로 새어가는 바람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래서 책을 통해, 특히 인문학을

통해 나에게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처음 시도해보는 낯선 대화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론 어색하기도 하지만 화해의 시작은 나의 상처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다.

"시네 필 다이어리"는 작가가 철학을 도구로 삼아 영화를 해석해 놓은 책이지만 영화보다는 철학에 더 큰 방점이 찍혀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책이 꼭 맞춘 듯 철학, 영화라는 나의 관심분야에 관한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상처에 이름을 지어 주는 이른바 "작명작업"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작가는 영화를 해석하는 잣대로서 철학을 '개념의 명료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이한 파동'이라는 추상성을 위해 차용했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와 반대로 철학을 '개념의 명료성'을 위해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책이 '파동'이라는 추상성과 '개념'이라는 구체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는 나의 상처들의 윤곽을 조금씩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총 8개의 영화를 선정했고 각각 그에 맞는 철학자들을 선정하여 영화를 해석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쇼생크 탈출>을 니체의 시각으로 해석해놓은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니체의 대표적인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기는 하였으나, 니체가 생에 대한 극단적인 긍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만 받았을 뿐 니체의 사상을 오롯이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여기서 설명하는 니체의 철학에서 그는 '강자'로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약자'로서 인간은 무리지어 다니며 타인의 눈치 속에 속박되어 있어 스스로의 가능성을 단아버리는 '수인(囚人)'이다. '강자'로서 인간은 스스로가 믿는 것을 타인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실천해 나간다.

또한, 감각의 한계에 간혀있지 않고 '홀로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와 반대로 '약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외부적 존재인 '신', 동시에 그 대용품으로써 '도덕'을 갈구해왔고, 그들이 만든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으며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자유를 반납하기도 했다. 인간들이 무리지어 사회를 구성하였고, 그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다른 인간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은 인간이란 존재를 냉혹하게 변모시켰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였다.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는 '강자'로서 인간이었다. 감옥 안에서도 부지런히 자유를 갈구했으며, 타인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뜻을 보여주었다. '약자'로서 다른 수감자들은 감옥이 주는 절망감 속에서 안락함에 안주하며 자유를 포기하지만 앤디는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결국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앤디가 투쟁을 통해 맞이한 것은 태양이 작열하는 해변에서 스스로가 하나의 자유롭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사실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도덕'이 완전히 필요하지 않다고 확

언할 수 없다. '도덕'을 기반으로 한 '법', 그 법이 부재했을 때 나타날 혼돈을 SF영화나 TV 등 많은 매체들을 통해 접했기 때문이다. 물론 '도덕'이 근대의 산물이며, 시대의 거울이고, 지배층의 패러다임임을 잘 알고 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공기처럼 늘 존재해온 '도덕'이라는 무형의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다만, 형벌에 대한 그의 통찰 그리고 '강자'와 '약자'로 인간을 분석한 점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과연 우리 사회가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통해 얼마나 교화되고 있는가? 정말 교도소를 통해서 수감자들은 교화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약자'로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강자'를 괴롭히고 그들이 틀렸다고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강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

눈 먼 자로서 대중은 무의식적으로 동조할 뿐이며 그들은 또 다른 약자일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도덕'을 철폐하고 사람들에게 '강자'가 되자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이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니체의 이론은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선 안 된다. '도덕'을 완전히 부정하기 보다는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도록 만드는 '도덕'을 변화시켜야 한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도덕은 존재하되, 더욱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내면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인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는 처벌을 위한 맹목적인 처벌이 아닌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의 목적을 뚜렷이 가진 과정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약자들은

어쩌면 이 사회가 기존에 따르던 '인습'에 의문 없이 믿음을 맹세하는 부류인지도 모른다. 설사 틀렸다고 생각이 돼도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고,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의 판단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강자'인 타인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견과 가치관이 공유가 가능한 평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되고, 개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약자'는 게 눈 감추듯 사라지고 '강자'로서 개인이 존립하게 될 것이다.

나의 상처 중 하나에 '잃어버린 자유'라는 이름을 지었다. 타인의 주목과 비판이 두려워 비겁하게 나의 호기심, 주장들을 숨기고 주장이 강한 타인에게 무임승차하여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스스로의 부끄러움이 나의 공허함을 만드는 상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상처에 대한 치유는 결국 '초인이 되는 것'이겠다.

# 이천시 도서관 안내

[www.icheonlib.go.kr](http://www.icheonlib.go.kr)

- 대출권수/기간 : 도서관별 5권(통합 최대20권)/14일 대출
- 대출제한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 대출증 발급대상 : 이천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경기도민, 충북 음성군민, 이천소재 직장인 및 재학생
- 자유열람실 이용 : 이천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주소지 제한 없음)






이천시립도서관

● 이천시 설봉로81번길 50 (☎644-4351)

	화요일~금요일	토요일~일요일	휴관일
가족열람실	9시~18시	9시~18시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문헌정보실 및 전자정보실	9시~22시		
자유열람실	월요일~일요일 8시~23시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이천시립청미도서관

●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29번길 53-6 (☎644-4371)

	화요일~금요일	토요일~일요일	휴관일
청미어린이도서관	9시~18시	9시~18시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문헌정보실	9시~22시		
디지털자료실	9시~20시		
자유열람실	월요일~일요일 8시~23시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 이천시 남천로 31(중리동) (☎644-4381)

	화요일~금요일	토요일~일요일	휴관일
새싹자료실	9시~18시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꿈나무자료실			




이천시립효양도서관

●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250번길 35 (☎644-4391)

	월요일~목요일	토요일~일요일	휴관일
어린이자료실	9시~18시	9시~18시	매주 금요일, 법정공휴일
종합자료실	9시~22시		
디지털자료실	9시~20시		
자유열람실	월요일~일요일 8시~23시		신청, 설연휴, 추석연휴
노트북열람실			


공립작은도서관

●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관명	주소	운영시간
시청작은도서관	이천시 부악로40, 1층(중리동)	월~금 9:00~18:00
백사작은도서관	이천시 백사면 현방로66번길 13, 2층	월~금 9:00~18:00
울면작은도서관	이천시 울면 고당로138번길 5-9, 1층	월~금 9:00~18:00
설성작은도서관	이천시 설성면 설장로17번길 6-6, 1층	월~금 9:00~18:00
호법작은도서관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27번길 27, 2층	월~금 9:00~18:00





## 사립작은도서관

- 아파트,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
- 이천시 도서관 도서대출증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각 작은도서관으로 연락바랍니다.

도서관명	주소	운영시간
사동누리작은도서관	대월면 경충대로2050번길 104 현대5차아파트 지하1층	월~금 13:00~18:00
샘터작은도서관	부발읍 경충대로 2037(현대3차아파트)관리동3층	월~금 13:30~18:30
이화작은도서관	부발읍 경충대로1804번길 47 이화아파트 관리동 2층	월~금 13:00~18:00
희망작은도서관	구만리로 42 현대홈타운106동 지하1층	월~금 13:00~18:00
효양작은도서관	부발읍 부발중앙로46번길 46, (효양아파트) 관리동 2층	월~금 13:00~18:00
한마음작은도서관	부발읍 신아로92번길 74-25(현대7차아파트)관리동2층	월~금 13:00~18:00
아리마을작은도서관	증신로291번길 155, (송정동, 신일1차아파트)관리동 2층	월~금 13:00~18:00
동양작은도서관	증신로 309 동양아파트내 작은도서관(1층)	월~금 13:00~18:00
증포작은도서관	이섭대천로1407번길 38 대우2차 아파트 복지동 2층	월~금 13:00~18:00
설봉아름드리작은도서관	애련정로 180, (증포동, 설봉2차푸르지오)관리동	월~금 13:00~18:00
에버빌작은도서관	안흥로 60 현진에버빌 아파트 관리동 지하1층	월~금 13:00~18:00
한솔작은도서관	백서면 이여로260-8 한솔아파관리동2층	월~금 13:00~18:00
장호원작은도서관	장호원읍 장감로77번길 55 (장호원리 150)	월~금 10:00~17:00
은광문고	구만리로 313 은광교회	월~토 10:00~17:00 일 11:00~14:00
충만작은도서관	부발읍 신아로9번길 18 (신하3리 361-22)	수~일 13:00~17:00





이천시립도서관 2017 글 모음집

## 책바라기

| 발 행 일 | 2017년 12월 15일

| 발 행 처 | 이천시

| 발행부서 | 이천시 도서관과

| 인 쇄 처 | 디자인맥터

비매품